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1CO

1CO · 서신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16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고린도전서 1장

1CO-001 · 서신서 · 헬라어

> "나는 바울에게" 외치는 네 패당 위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거꾸로 세운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편지를 받아 읽는 고린도 교회. 1-3절은 발신·수신·인사(편지 봉투).
- 두 폭 — 앞폭(1-9절) 감사의 자리 / 뒤폭(10-31절) 다툼을 다루는 자리.
- 소품 = 세례(13-17절), 십자가(17·18절), 표적 구하는 유대인·지혜 찾는 헬라인(22절).
- "분쟁"(10절)은 schismata — '찢어짐·갈라짐'의 결.
- "글로에의 집 편"(11절)의 전언이 편지의 발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따뜻함(1-9절 감사)에서 차가움(10절 분쟁)으로 한 번 꺾인다.
- 네 무리의 외침("나는 누구에게")이 한 방에서 부딪힌다.
- '지혜'의 환한 빛과 '십자가'의 어두워 보이는 빛이 거듭 뒤집힌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3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 인사로 열림.
-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 한 명령으로 닫힘.
- 파당의 이름(12절)에서 한 분의 이름(31절)으로, 자랑의 대상이 뒤집힌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소스데네(1) / 고린도 교회(2) / 글로에의 집 편(11) / 바울·아볼로·게바·그리스도(12) / 그리스보·가이오·스데바나의 집(14·16).
- 상황 = 네 무리로 갈라진 다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13절).
- 사상의 한 쌍 = "세상의 지혜" ↔ "십자가의 도"(18절).
- "능력"(dynamis)·"지혜"(sophia)가 한 인격(그리스도, 24·30절)으로 모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발신·수신·인사, "은혜와 평강".
- 컷 2 (4-9): 감사,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 컷 3 (10-17): 분쟁 보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 이야기.
- 컷 4 (18-25): 십자가의 도, 미련함과 능력, 유대인·헬라인.
- 컷 5 (26-31): 너희의 부르심, 약한 것을 택하심, "주 안에서 자랑하라".

6 — (1) 원어 카드

- schismata(σχίσματα) — 찢어짐·분쟁. 10절.
- sophia(σοφία) —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는 축어.
- stauros(σταυρός) — 십자가. 17·18절 "십자가의 도".
- moria(μωρία) — 미련함. 18·21·23·25절. (영어 moron의 뿌리)
- dynamis(δύναμις) — 능력. 18·24절 "하나님의 능력".
- kerygma(κήρυγμα) — 전파된 말씀·선포. 21절 "전도의 미련한 것".
- kauchaomai(καυχάομαι) — 자랑하다. 29·31절.

6 — (2) 문학 구조

- 인사(1-3) → 감사(4-9) → 분쟁 진술(10-17) → 십자가 논증(18-25) → 부르심 적용(26-31).
- 수사적 질문의 연쇄 —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13절).
- 인용 봉합 — 19절·31절의 인용이 십자가 논증을 여닫는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린도는 상업·웅변·지혜를 숭상한 도시 — 배경으로만.
-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22절)는 두 청중의 기대 차이 — 배경으로만.
-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1:19 ↔ 사 29:14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리라)
- 고전 1:31 ↔ 렘 9:23-24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 고전 1:18 ↔ 롬 1:16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 고전 1:24 ↔ 골 2:3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 고전 1:13 ↔ 엡 4:4-5 (몸이 하나·세례가 하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연다. "은혜와 평강"을 빌고, 그들이 받은 은사와 견고함을 두고 감사한다. 그러다 글로에의 집 편이 전한 소식이 박힌다 —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네 무리로 갈라졌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되묻고, 자기는 세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며 십자가로 화제를 돌린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언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끝으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며, 약한 것을 택하신 까닭이 아무 육체도 자랑 못 하게 함이라 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 갈라진 자랑을 거두는 한 분"**
- 초벌 부제: "네 패당의 외침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고린도 도시·표적/지혜·십자가 수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십자가의 도"를 속죄론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본문이 보고하는 미련함·능력의 대비만 기록.
- "택하심"(27-28절)을 예정 교리로 끌지 않도록 → 자랑 금지의 목적("아무 육체도", 29절)만 보존.
- 세례 단락(13-17절)을 세례 무용론으로 읽지 않도록 → 바울의 강조점(복음 전파 우선)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1장은 따뜻한 감사에서 네 무리의 분쟁을 지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거꾸로 세우고 모든 자랑을 한 분 안으로 거두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인사와 감사로 열린다. 그러나 글로에의 집 편이 전한 소식이 박히며 화제가 꺾인다 —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네 무리로 갈라졌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되묻고, 세례가 아니라 복음으로, 곧 십자가로 화제를 돌린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나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의 표적도 헬라인의 지혜도 아닌,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끝은 약한 것을 택하신 부르심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한 줄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편지 봉투(1-3) → 감사(4-9) → 분쟁(10-) → 십자가(18-) → 부르심(26-). 소품 = 세례·십자가. "분쟁"은 schismata(찢어짐).
2 첫 느낌·분위기	감사의 따뜻함에서 분쟁의 차가움으로 꺾임. 네 외침의 부딪힘. 지혜의 빛과 십자가의 빛의 뒤집힘.
3 시작과 끝	시작 — "은혜와 평강"(3절). 끝 — "주 안에서 자랑하라"(31절). 파당의 이름에서 한 분의 이름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소스데네 / 고린도 교회 / 네 무리. 상황 = 분쟁. 사상 = 세상의 지혜 ↔ 십자가의 도. dynamis·sophia가 그리스도로.
5 장면 컷	컷 1 인사(1-3). 컷 2 감사(4-9). 컷 3 분쟁·세례(10-17). 컷 4 십자가(18-25). 컷 5 부르심(26-31).
6 의문·발견·정보	세례에서 자기를 뺌(17). 못 박힌 그리스도(23). "미련함"(moria) 거듭. 인용 봉합(19·31).
7 동영상	인사 → 감사 → 분쟁 보고 → 십자가 선언 → 부르심 → "주 안에서 자랑하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 갈라진 자랑을 거두는 한 분". 부제 — "네 패당의 외침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다투던 모임과 십자가 선언의 자리를 걸으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갈라진 자랑과 한 분**: "나는 누구에게"(12절)의 흩어진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31절)로 거두어진다. 네 이름이 한 이름 안으로 모인다.

2. **결 2 — 미련함과 능력**: 같은 십자가(18절)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함, 구원받는 자에겐 능력이다. 보는 자리가 뒤집는다.

3. **결 3 — 약한 것의 택하심**: 약한 것·천한 것·없는 것을 택하사(27-28절) 아무 육체도 자랑 못 하게 한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부끄럽게 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서신류 안 — **롬 1:16**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골 2:3** (그 안에 지혜의 보화).
- 구약과 — **사 29:14**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리라), **렘 9:23-24**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 정경 흐름 — 십자가의 미련함은 구약의 "지혜를 멸하시는" 약속을 신약 교회의 분쟁 한가운데서 다시 연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받고 앉는다.
- **멈춤 1**: "나는 누구에게" 하며 갈라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십자가가 "미련함이자 능력"이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약한 것을 택하셨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모든 자랑은 한 분 안에서만 자랑이 된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주 안에서"의 자리*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감사한다
- [x] 교회가 네 무리로 갈라져 다툰다
- [x] 바울이 복음·십자가로 화제를 돌린다
- [x] 십자가는 미련함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 [x] 유대인의 표적도 헬라인의 지혜도 아닌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 [x] 약한 것·천한 것을 택하셨다
- [x] 끝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는 **분열·윤리 문제에 답하는 목회 서신**으로, 그 통치 영역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질서·사랑**이다. (book-telos.json에 1CO 좌표가 아직 없어, telos_default 절차에 따라 구속사 호 위에서 한 줄로 먼저 잡는다: "세상 지혜→십자가의 지혜, 분열→한 몸, 죽음→부활".) 구속사 호에서 이 책은 '성육신(복음서) → 교회·성령(행전·서신)' 국면에 속하며, 임한 통치가 한 지역 교회의 실제 공동체 안에서 거룩과 질서로 내면화되는 자리다. 1장은 그 호의 **첫 진단**이다. 책 전체의 운동(분열·자랑 → 십자가의 지혜 → 사랑[13장] → 부활[15장]의 소망)에서, 1장은 맨 앞의 "분열·자랑"을 무대에 올리고 곧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해법의 축을 박는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이 장은 **거룩(Holiness)**의 명령이 한 공동체의 갈라짐을 거두는 자리에 닿는다 — 갈라진 몸을 한 분 안으로 거두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갈라진 자랑("나는 바울에게")→한 분 안의 자랑("주 안에서") / 세상의 지혜→십자가의 능력(moria가 dynamis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흩어짐에서 모임으로 미는 운동이다. 인사·감사 → 네 무리의 분쟁(12절) →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13절) → 십자가의 도(18절) → 약한 것의 택하심(27절) → "주 안에서 자랑하라"(31절). 정지된 책망의 한 장이 아니라, 갈라진 자랑이 한 몸을 향해 거두어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파당·세례·논쟁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인간의 지혜와 자랑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한 공동체가 한 분 안으로 회복되는 통치**다. 다툼은 단순한 의견 차가 아니라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겨루는 자랑의 경쟁이다. 십자가는 이 경쟁의 토대 자체를 미련하게(moria) 만든다 —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 가장 미련해 보이는 처형 도구 안에 있다. 빙산의 수면 위는 교회의 분쟁이지만, 아래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던 옛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해체되고, 흩어진 무리가 한 몸으로 거두어지는 인격적 통치다. 무대에 선 작은 자들(26절) 속에서 세상의 권세 구조가 거꾸로 세워진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 지혜와 내가 속한 이름을 자랑하던 자리가, 십자가 앞에서 거두어져 "주 안에서"의 한 자랑으로 모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다투던 무리 곁과 십자가가 선언되는 자리에 나란히 세운다. **불씨(The Spark)**는 내 지혜의 환한 빛이 꺼지고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빛이 진짜 능력으로 점화되는 순간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모든 자랑이 한 분 안으로 거두어지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주 안에서.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자리에서, 이제 성령이 가르치는 지혜로 —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2장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바울은 세례를 베푼 일에서 자기를 빼는가?

- 14-17절에서 "내가 세례를 베푼 자가 없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강조점을 옮긴다.
- 세례를 가볍게 보는 것인지 다른 결인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표적도 지혜도 아닌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 유대인·헬라인 양쪽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을 굳이 전한다(22-23절).
-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으므로 위치만 보존.

Q3. 같은 십자가가 왜 한쪽엔 미련함, 한쪽엔 능력인가?

- 18절에서 보는 자리에 따라 정반대가 된다.
- 갈림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4. "약한 것·천한 것·없는 것을 택하사"(27-28절)의 까닭은?

-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역전이 거듭 진술된다.
- 택하심의 결은 본문이 더 풀지 않음. 분포만 보존.

Q5. 왜 다툼의 책망 끝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31절)인가?

- 파당의 자랑 뒤에 자랑의 대상 바꿈이 온다.
- 책망에서 자랑으로의 전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Q6. 30절 "지혜·의로움·거룩함·구원함"이 한 분 안에 모이는 것은 무엇을 담는가?

- 흩어진 자랑과 정반대로 네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
- 신학적 함의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2장

1CO-002 · 서신서 · 헬라어

>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내려놓은 자리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 가르치는 지혜가 흐른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바울의 회상(1-5절, 처음 고린도에 간 자리) → 현재 논증(6-16절).
- 두 층 — 떨며 전하던 낮은 자리 / 성령이 통달하는 "깊은 것"의 자리.
- 소품 = 비운 손("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2절) 하나.
- "깊은 것"(10절)의 '깊음'은 bathos — 바다 깊이의 결.
- 두 부류 — 육에 속한 사람(psychikos, 14절)·신령한 자(pneumatikos, 15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낮춤의 공기 —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3절).
- 두 층의 지혜(세상 ↔ 하나님)가 거듭 대비된다.
- 가려진 것("아무도 알지 못함", 8절)과 드러난 것("보이셨으니", 10절)의 두 축.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 사람 지혜를 내려놓으며 열림.
-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 채워진 손으로 닫힘.
- 빈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무도 모름에서 성령의 통달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1·3) / 고린도 교회 / 이 세대의 통치자들(6·8) / 성령(10-14) /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자(14-15).
- 상황 = 바울의 약함은 믿음이 사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함(5절).
- 사상의 한 쌍 = 이 세상의 지혜 ↔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지혜(6-7절).
-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13절), pneumatikos.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바울의 회상, 약하고 떨며 전함, 십자가만.
- 컷 2 (6-9): 온전한 자 중의 지혜, 감추인 비밀, 통치자들이 모름.
- 컷 3 (10-13): 성령의 통달·계시·가르침, "깊은 것까지".
- 컷 4 (14-16):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

6 — (1) 원어 카드

- sophia(σοφία) —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는 축어.
- mysterion(μυστήριον) — 비밀. 1·7절 "감추인 지혜".
- pneuma(πνεῦμα) — 영·성령. 후반부에 거듭.
- bathos(βάθος) — 깊음.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
- psychikos(ψυχικός) — 육에 속한·혼적. 14절.
- pneumatikos(πνευματικός) — 신령한·성령에 속한. 13·15절.
- nous(νοῦς) — 마음·지성.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6 — (2) 문학 구조

- 회상(1-5) → 감추인 지혜(6-9) → 성령의 계시(10-13) → 두 부류·결론(14-16).
- 대구 — "사람의 영이 사람의 일을 /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11절).
- 인용 봉합 — 9절·16절의 인용이 단락을 여닫는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린도는 웅변·수사를 숭상한 도시 — 바울의 "약함" 강조의 배경으로만.
- "온전한 자"(teleios, 6절)는 성숙·완전을 향한 말 — 배경으로만.
- "이 세대의 통치자들"(6·8절)은 본문이 회상하는 십자가 사건의 행위자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2:9 ↔ 사 64:4 (눈으로 보지 못하고)
- 고전 2:16 ↔ 사 40:13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 고전 2:5 ↔ 고전 1:18 (하나님의 능력)
- 고전 2:10 ↔ 롬 8:26-27 (성령이 깊은 것을 아심)
- 고전 2:7 ↔ 엡 3:9 (만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던 때를 회상한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 까닭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한다 — 감추였던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알듯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미련히 여기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성령이 통달하는 깊은 것 — 비운 손에 채워진 마음"**
- 초벌 부제: "비운 손에서 성령의 통달로, 감추인 비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고린도 웅변 문화·온전한 자·통치자들)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온전한 자 중의 지혜"(6절)를 비밀 엘리트주의로 끌지 않도록 → 본문이 말하는 분별의 결만 기록.
- 성령의 "통달"(10절)을 사변적 신지식으로 굳히지 않도록 → "주신 것을 알게 하려"(12절)의 목적만 보존.
- 육에 속한 자·신령한 자의 구분을 우열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본문이 보고하는 "분별" 여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내려놓은 빈손을 회상하며, 사람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통달해 가르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바울의 회상으로 열린다 —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고, 그 까닭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하려 함이었다. 이어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감추인 비밀의 지혜"를 말한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몰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미련히 여기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한 줄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상(1-5) → 논증(6-16). 비운 손·십자가만. "깊음"은 bathos. 두 부류 psychikos·pneumatikos.
2 첫 느낌·분위기	낮춤의 공기("약하고 떨었노라"). 두 층의 지혜. 가려진 것과 드러난 것의 대비.
3 시작과 끝	시작 — 사람 지혜를 내려놓음(1절). 끝 — "그리스도의 마음"(16절). 빈손에서 채움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통치자들 / 성령 / 두 부류. 약함은 믿음을 능력에 세우려 함. 사상 = 감추인 비밀의 지혜.
5 장면 컷	컷 1 회상(1-5). 컷 2 감추인 지혜(6-9). 컷 3 성령의 계시(10-13). 컷 4 두 부류·결론(14-16).
6 의문·발견·정보	"지혜를 말함"(6). 무지의 십자가(8). 사람의 영/하나님의 영 대구(11). 인용 봉합(9·16).
7 동영상	회상 → 감추인 지혜 → 성령의 통달 → 두 부류 →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성령이 통달하는 깊은 것 — 비운 손에 채워진 마음". 부제 — "비운 손에서 성령의 통달로…".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떨며 전하던 자리와 성령의 통달 자리를 걸으며 "약하고 떨었노라"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움과 채움**: 말과 지혜를 내려놓은 빈손(1절)이 "그리스도의 마음"(16절)으로 채워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2. **결 2 — 감춤과 드러냄**: 통치자들도 모르던 비밀(8절)을 성령이 보이신다(10절). 가려진 것이 드러난다.

3. **결 3 — 약함과 능력**: 떨던 바울의 약함(3절)이 믿음을 사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세운다(5절). 약함이 토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서신류 안 — **롬 8:26-27** (성령이 깊은 것을 아심), **엡 3:9** (만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
- 구약과 — **사 64:4**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 40:13**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 정경 흐름 — 1장의 "십자가의 능력"이 2장에서 "성령이 가르치는 비밀의 지혜"로 깊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자기 말과 지혜를 자랑하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1**: 떨며 전하던 약함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통치자들도 몰랐던 비밀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성령이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비운 손에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내 지혜를 내려놓는 자리*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바울이 약하고 떨며 십자가만 전했다

- [x] 그 까닭은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세우려 함이다
- [x]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인 비밀이다
- [x] 통치자들은 그것을 몰라 주를 못 박았다
- [x]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 [x]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갈린다
- [x] 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는 **분열·윤리 문제에 답하는 목회 서신**으로, 통치 영역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질서·사랑**이다. (1CO 좌표가 book-telos.json에 아직 없어 telos_default 절차로 한 줄을 먼저 잡는다: "세상 지혜→십자가의 지혜, 분열→한 몸, 죽음→부활".) 구속사 호에서 이 책은 '교회·성령(서신)' 국면이며, 임한 통치가 한 공동체의 인식과 분별 속으로 내면화되는 자리다. 2장은 그 호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를 연다. 1장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면, 2장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누가·어떻게 알아보게 되는가를 답한다 — 성령이다. 책 전체의 운동(분열·자랑 → 십자가의 지혜 → 사랑[13장] → 부활[15장])에서 2장은 "십자가의 지혜" 국면의 인식론적 토대를 놓는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깊음에 성령으로 닿게 되는 것은 **거룩(Holiness)**의 명령이 지성·인식까지 회복되는 자리에 닿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비운 손(사람의 지혜를 내려놓음)→채워진 마음("그리스도의 마음") /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깊음→성령이 통달하는 계시(bathos를 길어 올림).**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비움에서 채움으로 미는 운동이다. 떨며 비운 손(1-5절) → 감추인 비밀(6-9절) → 성령의 통달(10-13절) → 두 부류의 분별(14-15절) → "그리스도의 마음"(16절). 정지된 교리 해설이 아니라, 표면을 비워야 깊음이 보이고 깊음이 한 사람의 마음으로 길어 올려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바울의 회상과 지혜 논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인간의 인식 한계가 십자가 앞에서 인정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에 닿는 인격적 통치**다. 고린도는 웅변과 지혜로 사람을 줄 세우던 도시다. 본문은 그 토대를 "약함"으로 무너뜨린다 — 떨던 입을 통해 능력이 임하게 함으로. 빙산의 수면 위는 두 종류의 지혜 논쟁이지만, 아래는 사람의 지성(nous)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통달에 자기를 여는 인식의 회복이다. 통치는 의지나 행위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인식 자체를 회복한다 —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그 전면적 내면화를 가리킨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은 빈손에, 성령이 통달한 깊은 것이 길어 올려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떨며 전하던 바울 곁과 성령이 깊은 것을 통달하는 자리에 나란히 세운다. **불씨(The Spark)**는 내 지혜의 확신이 약함 앞에 무너지고, 성령이 보이시는 비밀이 진짜 지혜로 점화되는 순간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비운 손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깊은 것.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성령이 가르치는 깊은 지혜에서, 이제 그 지혜를 못 받는 젖먹이 같은 자로 —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일꾼은 다만 심고 물 줄 뿐임을 말하는 3장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1장의 미련함과 2장의 "지혜를 말함"(6절)은 어떻게 한 결인가?

- 지혜를 부정하던 자리에서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로 옮겨간다.
- 두 진술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모르고 한 십자가가 어떻게 정하신 비밀의 성취가 되는가?

-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았으리라"(8절)는데, 그 무지가 정하신 일을 이룬다.
-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으므로 위치만 보존.

Q3.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10절) 통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담는가?

-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대구로 진술된다.
- 통달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4.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14-15절)의 갈림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 받음·분별의 여부로 두 부류가 갈린다.
- 갈림의 기준은 본문이 더 풀지 않음. 분포만 보존.

Q5. "신령한 자는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15절)는 왜 한쪽으로만 열리는가?

- 판단의 방향이 비대칭으로 진술된다.
- 비대칭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Q6.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16절)는 무엇을 담는가?

- 9절 "생각하지도 못함"과 정반대로 "가졌다"로 닫힌다.
- 신학적 함의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3장

1CO-003 · 서신서 · 헬라어

>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밭과 집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세 번 바뀐다 — 젖먹이는 자리(1-4) → 밭(5-9) → 건축 현장(10-17).
- 소품 = 씨·물(6), 터·금·은·보석·나무·풀·짚(12), 불(13).
- 젖(2)처럼 부드러운 것과 불(13)처럼 시험하는 것이 한 장에.
- "성전"(16절)은 naos — 신이 거하시는 본전의 결.
- "터"(11절)는 themelios — 닦아 둔 바닥, 곧 예수 그리스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어린아이를 대하는 공기 — "젖으로 먹이고"(2절). 책망과 돌봄이 같이.
- 밭(농사)과 집(건축) 두 그림이 번갈아 비춘다.
- 불의 시험(13절)이 무대를 비추는 강한 빛.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 미숙함을 짚으며 열림.
-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 소유의 사슬로 닫힘.
- "나는 바울에게"(4절)의 갈라짐에서 "다 너희의 것"(22절)의 모음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1·6·10) / 아볼로(4·6) / 고린도 교회 /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6-7) / 불(13).
- 상황 = 여전한 다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4절).
- 사상의 한 쌍 = 심는 자·물 주는 자(사람) ↔ 자라게 하시는 이(하나님)(7절).
- 터는 그리스도(11), 그 위의 건축 재료에 따라 불의 시험이 갈림(12-15).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젖먹이는 자리, "육신에 속한 자", "나는 바울에게".
- 컷 2 (5-9): 밭 비유, 심는 자·물 주는 자·자라게 하시는 이.
- 컷 3 (10-15): 건축 비유, 터는 그리스도, 불의 시험.
- 컷 4 (16-17):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는 자 경고.

• 컷 5 (18-23): 세상 지혜의 미련함, "다 너희의 것", "그리스도의 것".

6 — (1) 원어 카드

• sarkikos(σαρκικός) — 육신에 속한. 1·3절.
• nepios(νήπιος) — 어린아이·젖먹이. 1절.
• georgion(γεώργιον) — 밭·경작지. 9절 "하나님의 밭".
• oikodome(οἰκοδομή) — 건물·집. 9절 "하나님의 집".
• themelios(θεμέλιος) — 터·기초. 11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 naos(ναός) — 성전·본전. 16·17절 "하나님의 성전".
• dokimazo(δοκιμάζω) — 시험·연단. 13절 "불이 시험하리니".

6 — (2) 문학 구조

• 미숙함 진단(1-4) → 밭 비유(5-9) → 건축 비유(10-15) → 성전 선언·경고(16-17) → 자랑 금지·소유 사슬(18-23).
• 두 비유(밭·집)가 9절에서 한 절로 묶임.
• 인용 봉합 — 19-20절의 두 인용이 세상 지혜의 미련함을 받친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젖과 밥"(2절)은 성숙 단계의 비유 — 배경으로만.
• 고린도의 건축물(돌·금속 장식)이 건축 비유의 배경 — 배경으로만.
• "성전"(naos)은 이방 도시 고린도의 신전 풍경과 대비되는 선언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3:19 ↔ 욥 5:13 (지혜 있는 자를 교활한 데서 잡으심)
• 고전 3:20 ↔ 시 94:11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이 헛됨)
• 고전 3:16 ↔ 고전 6:19 (몸이 성령의 전)
• 고전 3:11 ↔ 엡 2:20 (사도와 선지자의 터·그리스도가 모퉁잇돌)
• 고전 3:21 ↔ 고전 1:31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 주 안에서 자랑하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대하듯 젖으로 먹였다 한다. 아직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다투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되묻는다. 그러면서 밭 그림을 연다 —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계신다. 무대가 건축 현장으로 바뀐다 — 닦아 둔 터는 그리스도뿐이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불로 드러난다. 금·은·보석은 견디고 나무·풀·짚은 탄다. 그리고 선언이 박힌다 —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느니라."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실 것이라 경고한다. 끝으로 세상 지혜가 하나님 앞에 미련함이라 하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 심고 물 주는 두 손"**

- 초벌 부제: "심고 물 주는 두 손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젖과 밥 비유·고린도 건축·신전 대비)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불의 시험"(13절)을 연옥 교리로 끌지 않도록 → 본문이 보고하는 공적의 시험·구원 보존만 기록.
-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시리라"(17절)를 자의적 적용으로 굳히지 않도록 → 본문의 경고 위치만 보존.
- 심는 자·물 주는 자의 "아무것 아님"(7절)과 "동역자"(9절)를 모순으로 보지 않도록 → 두 진술을 나란히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3장은 어린아이처럼 사람을 줄 세우던 교회를 밭과 건물과 성전의 세 그림으로 다시 보게 하여,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계심을,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언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대하듯 젖으로 먹였다는 진단으로 열린다. 아직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다투는 것은 육신에 속함이다. 바울은 밭 비유를 연다 —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어 건축 비유로, 터는 그리스도뿐이고 그 위의 건축은 불로 시험받는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선언과, 그것을 더럽

히는 자에 대한 경고가 박힌다. 끝은 세상 지혜의 미련함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소유의 사슬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젖먹이는 자리(1-4) → 밭(5-9) → 건축(10-17). 소품 = 씨·물·터·불. "성전"은 naos, "터"는 themelios.
2 첫 느낌·분위기	어린아이를 대하는 공기. 밭과 집 두 그림. 불의 시험이 강한 빛.
3 시작과 끝	시작 —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1절). 끝 —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23절). 갈라짐에서 모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아볼로 /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 불. 상황 = 여전한 다툼. 사상 = 심는 자·물 주는 자 ↔ 자라게 하시는 이.
5 장면 컷	컷 1 젖(1-4). 컷 2 밭(5-9). 컷 3 건축(10-15). 컷 4 성전(16-17). 컷 5 자랑 금지·소유(18-23).
6 의문·발견·정보	다투던 두 이름이 한 농사로(6). "동역자"와 "아무것 아님"의 나란함(7·9). 인용 봉합(19-20).
7 동영상	젖 → 밭 → 건축·불 → 성전 선언 → "다 너희의 것"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 심고 물 주는 두 손". 부제 — "심고 물 주는 두 손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밭과 건축 현장과 성전을 걸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일꾼과 자라게 하시는 이**: 심는 자·물 주는 자는 아무것 아니요(7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계신다. 동역하나 자랑은 사람의 몫이 아니다.

2. **결 2 — 터와 그 위의 건축**: 터는 그리스도뿐(11절),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불로 드러난다(13절). 토대는 하나, 건축은 시험받는다.

3. **결 3 — 성전과 소유의 사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16절)이며,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22-23절). 거룩한 본전이 소유의 사슬 끝에 매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서신류 안 — **엡 2:20** (그리스도가 모퉁잇돌), **고전 6:19** (몸이 성령의 전).
- 구약과 — **욥 5:13·시 94:11**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이 헛됨).
- 정경 흐름 — 1장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가 3장에서 성전·동역·소유의 사슬로 깊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 편인지를 따지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1**: 일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터가 그리스도뿐이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다투던 공동체가 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를 알아보는 곳*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교회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다툰다
- [x] 심는 자·물 주는 자는 아무것 아니다
- [x]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 [x] 터는 그리스도, 건축은 불로 시험받는다
- [x]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 [x]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 [x]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는 **분열·윤리 문제에 답하는 목회 서신**으로, 통치 영역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질서·사랑**이다. (1CO 좌표가 book-telos.json에 아직 없어 telos_default 절차로 한 줄을 먼저 잡는다: "세상 지혜→십자가의 지혜, 분열→한 몸, 죽음→부활".) 구속사 호에서 이 책은 '교회·성령(서신)' 국면이며, 임한 통치가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 가는 자리다. 3장은 그 호에서 **'분열→한 몸'의 첫 그림**을 그린다. 1-2장이 분열의 뿌리(자기 지혜의 자랑)와 그 해독제(십자가의 지혜)를 다뤘다면, 3장은 그 갈라진 무리를 하나의 밭·건물·성전이라는 한 몸의 이미지로 다시 본다. 책 전체의 운동(분열·자랑 → 십자가의 지혜 → 사랑[13장] → 부활[15장])에서 3장은 "분열→한 몸"으로 미는 전환점이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Holiness)**의 명령이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자리 — 하나님이 거하시는 본전이 곧 거룩의 처소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사람을 줄 세움("나는 바울에게")→다 너희의 것(소유의 사슬) / 다투는 건물→성령이 거하시는 성전(naos).**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갈라짐에서 한 성전으로 미는 운동이다. 어린아이의 다툼(1-4절) → 밭의 동역(5-9절) → 건축과 불의 시험(10-15절) →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16절) → "다 너희의 것"(22-23절). 정지된 책망이 아니라, 줄 세우던 손이 풀려 한 성전을 함께 짓는 자리로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파당·비유·경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경쟁하던 무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성전으로 빚어지는 인격적 통치**다. 다툼은 누가 더 큰 일꾼인가의 경쟁이다. 본문은 일꾼을 "아무것도 아니"라 하여 그 경쟁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일꾼 논쟁이지만, 아래는 공동체가 자기를 한 성전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아보는 정체성의 회복이다. 통치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한 거룩한 본전으로 내면화한다 — "성령이 거하시느니라"는 그 전면적 거주를 가리킨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가 누구 편인지 줄 세우던 자리가, 우리는 한 밭이요 한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신다는 자리로 다시 보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밭의 두 손 곁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선언되는 자리에 나란히 세운다. **불씨(The Spark)**는 내가 큰 일꾼이 되려던 경쟁이 꺼지고, 우리가 함께 한 성전을 짓는 동역으로 점화되는 순간이다. **도화선(The Fuse)**은 사람을 자랑하던 우선순위가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재설정되는 자리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다투던 무리가 한 성전으로 다시 보이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성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성전을 짓는 일꾼에서, 이제 그 일꾼의 본(本)으로 —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자기 삶으로 보이는 사도의 모습을 그리는 4장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아무것도 아니"(7절)면서 동시에 "동역자"(9절)인 것은 어떻게 한 결인가?

- 심는 자·물 주는 자가 아무것 아니라 했다가 곧 하나님의 동역자라 부른다.
- 두 진술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공적은 타도 사람은 구원받는다(15절)는 무엇을 담는가?

-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표현이 따라온다.
-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으므로 위치만 보존.

Q3. 왜 부드러운 밭 비유 뒤에 강한 멸하심의 경고(17절)가 오는가?

-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가 갑자기 강하게 박힌다.
- 전환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4.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16절)은 개인인가 공동체인가?

- "너희"의 복수와 "성전"의 단수가 함께 쓰인다.
- 지시 범위는 본문이 더 풀지 않음. 위치만 보존.

Q5. "다 너희의 것"(22절)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23절)은 어떻게 한 사슬인가?

- 모든 것이 너희 것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역방향 소유가 이어진다.
- 소유 사슬의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1장의 자랑 금지가 왜 3장 끝에 다시 돌아오는가?

-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21절)가 1:31과 짝을 이룬다.
- 반복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4장

1CO-004 · 서신서 · 헬라어

> 배부른 너희와 만물의 찌꺼기 된 사도 —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세 폭 — 심판의 자리(1-5) → 두 처지 대조(6-13) → 아버지가 자녀에게(14-21).
- 소품 = 구경거리(theatron, 9절, 원형극장의 결), 주림·목마름·헐벗음(11절), 매(21절).
- 소재가 헐벗은 것들 — 수고·매맞음·정처 없음(11-12절).
- "맡은 자"(1절)는 oikonomos — 집 살림을 맡은 청지기.
- "아버지"의 자리(15절) — "복음으로 낳았음이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두 처지의 시린 대조 — "배부른 너희 / 주린 우리"(8·11절).
- "이미 왕이 되었도다"(8절)의 안타까운 반어.
- "구경거리"(9절)로 무대 위에 올려진 사도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 충성이니라" — 청지기의 충성으로 열림.
- 21절: "매를 가지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 아버지의 물음으로 닫힘.
- 충성된 청지기에서 매냐 사랑이냐로, 받은 것의 자랑에서 낮아진 본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1·9·14) / 아볼로(6) / 고린도 교회 / 판단하는 자들(3) / 디모데(17) / 교만한 자들(18-19).
- 상황 = 세 쌍의 대조 — 지혜/미련, 강함/약함, 존귀/비천(10절).
- 사상의 한 쌍 = "말" ↔ "능력"(20절).
- "본받는 자"(mimetes, 16절), 디모데를 보내 행사를 생각나게 함(1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맡은 자의 충성, 세 종류의 심판.
- 컷 2 (6-13): 받은 것의 자랑, 두 처지, "만물의 찌꺼기".
- 컷 3 (14-17): 아버지의 권면,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 파송.
- 컷 4 (18-21): 교만한 자들, "나라는 능력에", 매냐 사랑이냐.

6 — (1) 원어 카드

- oikonomos(οἰκονόμος) — 청지기·맡은 자. 1-2절.
- pistos(πιστός) — 충성된·신실한. 2절 "충성이니라".
- theatron(θέατρον) — 구경거리·극장. 9절.
- perikatharma(περικάθαρμα) — 찌꺼기·씻어 버린 오물. 13절.
- mimetes(μιμητής) — 본받는 자. 16절.
- basileia(βασιλεία) — 나라·왕국. 20절 "하나님의 나라".
- dynamis(δύναμις) — 능력. 19·20절.

6 — (2) 문학 구조

- 충성·심판(1-5) → 자랑 책망·대조(6-13) → 부성적 권면(14-17) → 경고·결론(18-21).
- 수사적 질문 —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7절)의 삼중 물음.
- 반어 — "이미 부요하고 왕이 되었도다"(8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구경거리"(theatron)는 사형수가 원형극장 맨 끝에 끌려나오던 풍경 — 배경으로만.
- "청지기"는 주인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던 직책 — 배경으로만.
- "스승과 아버지"(15절)는 당시 교육 관계의 비유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4:12-13 ↔ 마 5:44 (모욕을 축복으로 갚음)
- 고전 4:20 ↔ 고전 2:4-5 (말이 아니라 능력)
- 고전 4:5 ↔ 롬 2:16 (주께서 숨은 것을 드러내심)
- 고전 4:16 ↔ 고전 11:1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 고전 4:7 ↔ 약 1:17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받은 것)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 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자기는 사람의 판단도 자기 판단도 아닌 주의 판단을 기다린다 한다. 이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며,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 한다. 너희는 부요하고 왕이 되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두 처지를 나란히 둔다.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되어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며, 모욕을 축복으로 갚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는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권하려 함이다 —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나를 본받으라" 하며 디모데를 보낸다. 끝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속히 가서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고, 매냐 사랑이냐 묻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나라는 능력에 있음이라 — 찌꺼기 된 사도의 본"**
- 초벌 부제: "맡은 자의 충성에서, 나라는 능력에 있음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구경거리·청지기·스승과 아버지)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나를 본받으라"(16절)를 인물 숭배로 끌지 않도록 → "복음으로 낳음"(15절)의 부성적 권면 맥락만 기록.
- "만물의 찌꺼기"(13절)를 고난 신학으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 본문이 보고하는 사도의 처지만 기록.
- "매를 가지고 가랴"(21절)를 징벌 권위로 굳히지 않도록 → 사랑·온유와의 양자택일 형식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4장은 사도를 맡은 자의 충성과 만물의 찌꺼기 된 처지로 그려,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던 교회 앞에 낮아진 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못 박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사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는 진술로 열린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바울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며, 받은 것의 자랑을 책망한다. 고린도는 이미 부요하고 왕이 되었다 여기나,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되어 주리고 헐벗고 매맞으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권함이다 — "복음으로 낳았으니 나를 본받으라." 끝은 교만한 자들을 향한 경고와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리고 "매냐 사랑이냐"의 물음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심판의 자리(1-5) → 두 처지(6-13) → 아버지(14-21). 소품 = 구경거리·헐벗음·매. "맡은 자"는 oikonomos.
2 첫 느낌·분위기	두 처지의 시린 대조. "이미 왕이 되었도다"의 반어. 구경거리 된 사도들.
3 시작과 끝	시작 — 청지기의 충성(2절). 끝 — "매냐 사랑이냐"(21절). 직무에서 관계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아볼로 / 디모데 / 교만한 자들. 세 쌍의 대조. 사상 = 말 ↔ 능력.
5 장면 컷	컷 1 충성·심판(1-5). 컷 2 자랑·대조(6-13). 컷 3 부성적 권면(14-17). 컷 4 경고·결론(18-21).
6 의문·발견·정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의 삼중 물음(7). 모욕을 축복으로(12-13). "찌꺼기"(perikatharma).
7 동영상	청지기 → 자랑 책망 → 찌꺼기 된 처지 → 부성적 권면 → "나라는 능력에"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나라는 능력에 있음이라 — 찌꺼기 된 사도의 본". 부제 — "맡은 자의 충성에서, 나라는 능력에 있음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구경거리 된 자리와 아버지의 권면 자리를 걸으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맡은 자와 충성**: 사도는 비밀을 맡은 청지기요(1절), 구할 것은 충성이다(2절). 판단은 주께 속한다.
2. **결 2 — 받은 것과 자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7절).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할 수 없다.
3. **결 3 — 말과 능력**: 교만한 자의 말과 사도의 능력이 갈린다(19-20절).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서신류 안 — **고전 2:4-5** (말이 아니라 능력), **고전 11:1** (나를 본받으라).
- 복음서와 — **마 5:44** (모욕을 축복으로 갚음).
- 정경 흐름 — 1-2장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4장에서 사도의 삶 전체로 구체화된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던 사람들의 판단 앞에 선다.
- **멈춤 1**: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의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만물의 찌꺼기 된 사도의 처지에서 멈춘다.
- **멈춤 3**: "나를 본받으라"는 아버지의 권면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나라는 말솜씨가 아니라 낮아진 능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 자리*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사도는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 [x] 구할 것은 충성이며 판단은 주께 속한다
- [x]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할 수 없다

- [x] 사도들은 구경거리·찌꺼기 같이 되었다
- [x]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로서 본받으라 한다
- [x]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 [x] 매냐 사랑이냐를 묻는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는 **분열·윤리 문제에 답하는 목회 서신**으로, 통치 영역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질서·사랑**이다. (1CO 좌표가 book-telos.json에 아직 없어 telos_default 절차로 한 줄을 먼저 잡는다: "세상 지혜→십자가의 지혜, 분열→한 몸, 죽음→부활".) 구속사 호에서 이 책은 '교회·성령(서신)' 국면이며, 임한 통치가 한 사도의 삶 전체를 통해 입증되는 자리다. 4장은 그 호에서 **'십자가의 지혜'가 한 사람의 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 준다. 1-2장이 십자가의 지혜를 선언했다면, 3장이 그것을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그렸다면, 4장은 그 지혜를 자기 삶으로 입증하는 청지기를 무대에 올린다 — 찌꺼기 된 사도의 낮음이 곧 "말이 아니라 능력"의 산 증거다. 책 전체의 운동(분열·자랑 → 십자가의 지혜 → 사랑[13장] → 부활[15장])에서 4장은 "십자가의 지혜" 국면을 삶으로 닫고, 5장 이후의 구체적 윤리 문제로 넘어가는 다리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받은 것으로만 사는 청지기의 충성은 **거룩(Holiness)**이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는 자리에 닿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배부른 자랑("이미 왕이 되었도다")→낮아진 능력("나라는 능력에 있다") / 부풀린 말→입증되는 삶 (oikonomos의 충성).**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높아진 말에서 낮아진 능력으로 미는 운동이다. 맡은 자의 충성(1-5절) → 받은 것의 자랑 책망(6-7절) → 찌꺼기 된 처지(8-13절) → 부성적 권면(14-17절) → "나라는 능력에"(20절). 정지된 자기 변호가 아니라, 부풀린 말이 낮아진 삶 앞에 무너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사도의 처지 진술과 권면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권위와 영광의 정의가 십자가를 따라 거꾸로 세워지는 인격적 통치**다. 고린도는 말솜씨·풍족·지위로 영광을 가늠했다. 본문은 그 잣대를 뒤집는다 — 가장 낮은 찌꺼기 된 사도가 본받을 본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두 처지의 대조이지만, 아래는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인식, 곧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아는 겸손의 회복이다. 통치는 외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자기 인식 자체를 회복한다 — 자랑하던 자가 받은 자로 다시 서는 것이 그 내면화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가 내 말솜씨와 풍족으로 영광을 가늠하던 자리가, 받은 것으로만 사는 낮아진 능력의 자리로 다시 보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구경거리 된 사도 곁과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의 물음 앞에 나란히 세운다. **불씨(The Spark)**는 부풀린 자랑이 꺼지고,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아는 겸손이 점화되는 순간이다. **도화선(The Fuse)**은 영광의 잣대를 말솜씨에서 낮아진 능력으로 재설정하는 자리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부풀린 말이 낮아진 능력 앞에 무너지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능력.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낮아진 능력을 본으로 세운 자리에서, 이제 그 능력으로 다스려져야 할 거룩으로 — 교회 안의 음행을 다루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외치는 5장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하나님이 사도를 "끄트머리에"(9절) 두신다고 하는가?

-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한다.
- 가장 낮은 자리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7절)의 삼중 물음은 무엇을 겨누는가?

- 구별·받음·자랑이 한 물음에 묶인다.
-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으므로 위치만 보존.

Q3. 모욕을 축복으로 갚는(12-13절) 것은 어떤 결인가?

- 받는 것과 갚는 것이 반대로 진술된다.
- 역방향 갚음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4.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는 하나"(15절)는 무엇을 가르는가?

- "복음으로 낳았다"는 출산의 말이 따라온다.
- 스승과 아버지의 구분은 본문이 더 풀지 않음. 위치만 보존.

Q5. 왜 "말이 아니라 능력"(20절)을 보겠다고 하는가?

- 교만한 자들의 말과 그들의 능력이 대조된다.
- 말과 능력의 갈림은 관찰로는 보류.

Q6. "매냐 사랑이냐"(21절)의 양자택일은 무엇을 담는가?

- 아버지가 자녀에게 두 길을 나란히 둔다.
- 두 길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5장

1CO-005 · 서신서 · 헬라어

>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부풀린다. 통회 대신 자랑하던 교회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가 박힌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두 폭 — 음행 사건을 다루는 회중(1-8) → 이전 편지 해명·안팎 구분(9-13).
- 소품 = 빵 반죽(누룩·온 덩어리·누룩 없는 떡, 6-8절).
- 소재 두 종류 — 부풀게 하는 누룩(악·악독)과 누룩 없는 순전함·진실(8절).
- "순전함"(8절)은 eilikrineia — 햇빛에 비춰도 흠 없는 결.
- 배경 = 유월절 풍습(7절), 이전에 보낸 편지(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지혜 논쟁에서 한 구체적 사건으로 무거워진다.
- 반응의 어긋남 — 통회 대신 자랑(2절).
- 부엌의 빵 반죽 그림이 들어온다(6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니…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 폭로로 열림.
- 13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 명령으로 닫힘.
- "누룩"이 양 끝을 잇는 축 — 퍼짐(6절)에서 치움(7절)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3) / 고린도 교회 / 음행한 한 사람(1·5) / 그의 아버지의 아내(1) / 안팎의 사람들(9-12).
- 상황 = 반응의 어긋남. "교만하여진"(2절) 교회가 슬퍼하지 않음.
- 사상의 한 쌍 = 묵은 누룩 ↔ 누룩 없는 떡(7-8절).
-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11절), 안의 사람을 향한 경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 음행 폭로, 통회 대신 자랑.
- 컷 2 (3-5): 바울의 판단, "사탄에게 내주라".
- 컷 3 (6-8): 누룩 비유, 유월절 양 그리스도,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 컷 4 (9-13): 이전 편지 해명, 안과 밖, "내쫓으라".

6 — (1) 원어 카드

- porneia(πορνεία) — 음행. 1절.
- zyme(ζύμη) — 누룩. 6-8절.
- phyrama(φύραμα) — 반죽·덩어리. 6-7절 "온 덩어리".
- pascha(πάσχα) — 유월절. 7절 "유월절 양 그리스도".
- eilikrineia(εἰλικρίνεια) — 순전함. 8절.
- physioo(φυσιόω) — 교만하여지다·부풀다. 2절.
- paradidomi(παραδίδωμι) — 넘겨주다. 5절 "사탄에게 내주라".

6 — (2) 문학 구조

- 폭로(1-2) → 판단·조치(3-5) → 누룩 비유·유월절(6-8) → 편지 해명·안팎(9-13).
- 수사적 질문 —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6절).
- 인용 봉합 — 13절 "내쫓으라"가 신명기 결의 명령을 끌어온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유월절에 묵은 누룩을 집에서 치우던 풍습 — 7절 비유의 배경으로만.
- "누룩"은 발효·확산의 상징으로 흔히 쓰임 — 배경으로만.
- "이전 편지"(9절)는 현전하지 않는 서신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5:7 ↔ 출 12:15 (누룩 없는 떡·유월절)
- 고전 5:13 ↔ 신 17:7 (악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 고전 5:6 ↔ 갈 5:9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 고전 5:5 ↔ 딤전 1:20 (사탄에게 내줌)
- 고전 5:2 ↔ 고전 4:18 (교만하여진 자들)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충격적 소식을 꺼낸다 — 교회 안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있는데, 교회는 통회하기는커녕 교만하여졌다. 바울은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이미 판단했다 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 한다. 그러면서 부엌 그림을 연다 —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린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절기를 지키자. 이어 이전 편지를 해명한다 —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 하면서 음행·탐욕·우상숭배·모욕·술취함·속여 빼앗는 자를 두고 한 말이며,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끝으로 밖의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 통회 대신 자랑하던 자리"**
- 초벌 부제: "어긋난 자랑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유월절 누룩 풍습·이전 편지·누룩 상징)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사탄에게 내주라"(5절)를 임의적 정죄로 굳히지 않도록 → "영은 구원받게 하려"의 목적까지 함께 기록.
- "내쫓으라"(13절)를 무차별 배제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 본문이 가른 안과 밖의 구분만 보존.
- 누룩 비유를 율법주의로 끌지 않도록 →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 위의 정결임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의 음행을 통회 없이 자랑하던 회중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린다는 부엌 그림으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명하고, 이미 희생된 유월절 양 위에서 순전함의 정결을 부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충격적 폭로로 열린다 —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통회 대신 교만하여졌다. 바울은 영으로 함께 있어 이미 판단했다 하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 한다. 이어 누룩 비유로 —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리니,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절기를 지키라. 끝은 이전 편지의 해명과 안팎의 구분,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명령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중(1-8) → 편지 해명·안팎(9-13). 소품 = 빵 반죽(누룩·덩어리). "순전함"은 eilikrineia. 배경 = 유월절·이전 편지.
2 첫 느낌·분위기	한 구체적 사건으로 무거워짐. 통회 대신 자랑의 어긋남. 부엌의 빵 반죽 그림.
3 시작과 끝	시작 — 음행 폭로(1절). 끝 — "내쫓으라"(13절). 누룩의 퍼짐에서 치움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음행한 한 사람 / 안팎의 사람들. 상황 = 반응의 어긋남. 사상 = 묵은 누룩 ↔ 누룩 없는 떡.
5 장면 컷	컷 1 폭로(1-2). 컷 2 판단(3-5). 컷 3 누룩·유월절(6-8). 컷 4 편지·안팎(9-13).
6 의문·발견·정보	슬픔과 조치의 한 호흡(2). 멸함과 구원(5). 안팎 구분의 직접 해명(9-10). 인용 봉합(13).
7 동영상	폭로 → 판단 → 누룩·유월절 → 안팎의 정결 → "내쫓으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 통회 대신 자랑하던 자리". 부제 — "어긋난 자랑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통회하지 못하던 회중과 누룩 치우는 부엌을 걸으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통회와 자랑**: 슬퍼할 자리에서 교만하여졌다(2절). 잃어버린 통회의 감각이 무대 위에 있다.
2. **결 2 — 누룩과 순전함**: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린다(6절). 묵은 누룩을 치우고 순전함으로(7-8절).
3. **결 3 — 유월절 양의 토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7절). 정결은 한 희생 위에 선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서신류 안 — **갈 5:9**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딤전 1:20** (사탄에게 내줌).
- 구약과 — **출 12:15** (유월절 누룩 없는 떡), **신 17:7** (악을 제하라).
- 정경 흐름 — 출애굽의 유월절 정결이 신약 교회의 자기 정결로 다시 울린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익숙해진 죄 앞에 둔감해진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1**: 통회 대신 자랑하던 어긋남에서 멈춘다.
- **멈춤 2**: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의 부엌 그림에서 멈춘다.
- **멈춤 3**: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정결은 한 희생 위에서 묵은 것을 치우는 일이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순전함을 향해 비우는 자리*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 [x] 교회는 통회 대신 자랑한다
- [x] 바울이 처리를 명한다

- [x]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린다
- [x]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 [x]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절기를 지키라
- [x] 안은 다루고 밖은 하나님께 맡긴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는 **분열·윤리 문제에 답하는 목회 서신**으로, 통치 영역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질서·사랑**이다. (1CO 좌표가 book-telos.json에 아직 없어 telos_default 절차로 한 줄을 먼저 잡는다: "세상 지혜→십자가의 지혜, 분열→한 몸, 죽음→부활".) 구속사 호에서 이 책은 '교회·성령(서신)' 국면이며, 임한 통치가 한 공동체의 도덕적 정결로 내면화되는 자리다. 5장은 그 호에서 **구체적 윤리 문제의 첫 사례**다. 1-4장이 분열과 지혜의 자랑을 다뤘다면, 5장부터는 그 자랑이 실제 삶의 죄를 묵인하는 데까지 번졌음을 드러낸다 — 같은 "부풀림"(physioo)이 지혜의 자랑(4:18-19)에서 음행의 묵인(5:2)으로 이어진다. 책 전체의 운동(분열·자랑 → 십자가의 지혜 → 사랑[13장] → 부활[15장])에서 5장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통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자리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룩(Holiness)**의 명령이 한 회중의 실제 정결로 임하는 자리 — 출애굽의 유월절 정결이 신약 교회로 흘러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부풀린 자랑(통회 없는 교만)→치워진 누룩(순전함의 정결) / 한 사건의 묵인→유월절 양 위의 공동체 정결(pascha가 토대).**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둔감한 묵인에서 순전함으로 미는 운동이다. 음행 폭로(1-2절) → 판단과 조치(3-5절) → 누룩 비유와 유월절(6-8절) → 안팎의 정결(9-13절). 정지된 비난이 아니라, 부푼 덩어리가 순전함을 향해 비워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한 음행 사건과 그 처리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잃어버린 통회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한 희생 위에서 공동체가 순전함으로 회복되는 인격적 통치**다. 둔감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감각의 마비다. 본문은 그 마비를 깨워 "차라리 통한히 여기라"(2절) 한다. 빙산의 수면 위는 출교의 조치이지만, 아래는 공동체가 자기를 누룩 없는 떡으로 다시 인식하고, 유월절 양의 희생 위에서 순전함을 회복하는 정체성의 회복이다. 통치는 행위 규범을 넘어 죄를 느끼는 감각 자체를 회복한다 — 그것이 둔감한 묵인을 통회로 되돌리는 내면화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익숙해져 둔감해진 묵은 누룩 앞에서, 통회의 감각이 되살아나 순전함을 향해 비워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통회하지 못하던 회중 곁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의 명령 앞에 나란히 세운다. **불씨(The Spark)**는 둔감해진 마음이 다시 죄를 죄로 느끼고, 순전함을 향한 갈망이 점화되는 순간이다. **도화선(The Fuse)**은 익숙한 묵인의 우선순위가 "유월절 양 위의 정결"로 재설정되는 자리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부푼 덩어리가 순전함으로 비워지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순전함.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공동체의 정결을 명한 자리에서, 이제 그 정결이 형제 간 송사와 몸의 거룩으로 —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6장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음행 앞에서 교회는 통회 대신 자랑(2절)하였는가?

-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교만하여졌다.
- 반응의 어긋남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5절)는 어떻게 한 조치인가?

- 멸함과 구원이 한 결정에 같이 놓인다.
-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으므로 위치만 보존.

Q3. "유월절 양 그리스도"(7절)와 누룩 치움은 어떻게 묶이는가?

- 희생과 정결이 한 절에서 이어진다.
- 둘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4. "이미 누룩 없는 자"인데 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7절)인가?

- 본질과 명령이 한 절에 같이 있다.
- 이미/아직의 긴장은 본문이 더 풀지 않음. 위치만 보존.

Q5. 왜 안은 다루고 밖은 하나님께 맡기는가(12-13절)?

- 판단의 안팎이 갈린다.
- 구분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Q6. "함께 먹지도 말라"(11절)는 어디까지를 가리키는가?

- 형제라 하면서 죄에 거하는 자를 향한 경계다.
- 경계의 범위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6장

1CO-006 · 서신서 · 헬라어

>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세운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 — 값으로 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 앞은 법정("불의한 자들 앞에서"·"재판장", 1-6절), 뒤는 몸의 자리(15-20절).
- 법정 소품 — 송사·다툼·"세상 사람".
- 몸 소품 — "지체"·"성령의 전"(naos)·"값"(15-20절).
- 가름 소재 — "음식은 배를, 몸은 주를"(13절), "한 몸·한 영"(16-1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알지 못하느냐"가 거듭 묻힌다.
- 앞은 법정, 뒤는 몸 — 무게가 몸으로 옮겨간다.
-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20절)로 닫힌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 송사를 꾸짖으며 열림.
-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몸의 영광으로 닫힘.
- 법정에서 몸으로, 다툼에서 영광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다툼이 있는 형제 둘 / "불의한 자들"·"세상 사람"(1·4절) / "지체"·"창녀"·"주"(15-17절).
- 상황: 형제를 불신자 법정에 세움(1-8절), 몸을 음란에 내어줌(12-20절) — 둘 다 "알지 못하느냐".
- 사상의 핵 —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11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19절).
- 가름 — "창녀와 합하면 한 몸, 주와 합하면 한 영"(16-1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송사 —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 컷 2 (7-11):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 목록과 "너희도 이와 같았으나".
- 컷 3 (12-17): 자유와 몸 — "모든 것이 가하나", "한 몸·한 영".
- 컷 4 (18-20): 음행을 피하라 — "너희 몸은 성령의 전".

6 — (1) 원어 카드

- adikos(ἄδικος) — 불의한 자. 1·9절.
- naos(ναός) — 성소·지성소. 19절 "성령의 전".
- soma(σῶμα) — 몸. 13·15·18·19·20절에 빽빽이.
- porneia(πορνεία) — 음행. 18절 "음행을 피하라".
- apolouo(ἀπολούω) — 씻어 냄. 11절 "씻음을 받았다".
- doxazo(δοξάζω) — 영광을 돌리다. 20절 "영광을 돌리라".

6 — (2) 문학 구조

- 송사 책망(1-8) → 목록과 과거 끊음(9-11) → 자유와 몸(12-17) → 음행을 피하라·성령의 전(18-20).
- 법정(1-11)과 몸(12-20)의 두 단락.
- "알지 못하느냐"의 거듭된 물음(2·3·9·15·16·19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6절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창세기 2:24 인용 — 배경으로만.
- "성령의 전"(naos)은 건물의 바깥뜰이 아닌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 — 배경으로만.
- 9-10절 목록은 당시 고린도 사회의 죄목들을 받는다 — 위치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6:16 ↔ 창 2:24 (둘이 한 육체)
- 고전 6:11 ↔ 고전 1:30 (씻음·거룩함·의)
- 고전 6:19 ↔ 고전 3:16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 고전 6:9-10 ↔ 갈 5:19-21 (육체의 일 목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어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터인데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고 송사를 꾸짖는다. "피차 고발함이 이미 잘못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며 목록을 부른 뒤 "너희도 이와 같았으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다. 이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음식은 배를 위하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 하고,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음행을 피하라" 한다. 끝으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너희 몸은 성령의 전 —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 초벌 부제: "형제를 세우는 법정에서, 성령의 전 된 몸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창 2:24 인용·지성소 naos·죄목 목록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9-10절 목록을 정죄의 잣대로 굳히지 않도록 → "너희도 이와 같았으나"(11절)의 끊음과 함께 보존.
-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2-3절)를 종말 교리로 단정하지 않도록 → 본문 문장 위치만 보존.
-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18절)의 까닭을 본문 밖에서 채우지 않도록 → 단언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6장은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송사를 꾸짖고, 몸이 성령의 전임을 들어, 값으로 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어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터인데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7절) 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며 목록을 부른 뒤 "너희도 이와 같았으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11절)로 과거를 끊는다. 이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고, 몸은 음란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며 "창녀와 합하면 한 몸, 주와 합하면 한 영"(16-17절)이라 가른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19-20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두 무대 — 법정(1-6)·몸(15-20). 송사·지체·"성령의 전". adikos·naos·porneia.
2 첫 느낌·분위기	"알지 못하느냐"의 거듭됨. 법정에서 몸으로. "값으로 산 것"으로 닫힘.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감히 송사하느냐"(1). 끝 —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20). 법정에서 영광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다투는 형제·불의한 자 / 지체·창녀·주. 사상 — "씻음·거룩·의"(11), "내 것이 아님"(19).
5 장면 컷	컷 1 송사(1-6). 컷 2 차라리 불의 당함(7-11). 컷 3 자유와 몸(12-17). 컷 4 성령의 전(18-20).
6 의문·발견·정보	"알지 못하느냐"의 화법. 세상·천사 판단. 자유의 한계. 창 2:24 인용.
7 동영상	송사 책망 → 차라리 불의 당함 → 자유와 몸 → "성령의 전 된 몸으로 영광"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너희 몸은 성령의 전". 부제 — "형제를 세우는 법정에서, 성령의 전 된 몸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법정과 몸의 자리를 걸으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라(7절), 이김보다 손해를 택하라 한다.

2. **결 2 — 너희도 이와 같았으나**: 목록의 과거를 끊고 씻음·거룩함·의(11절)를 세운다. 정죄가 아니라 끊음이다.

3. **결 3 — 몸이 성령의 전**: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된 성소다(19-20절). 자유는 거룩으로 한계 지어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6:11** ↔ **고전 1:30** (씻음·거룩·의), **고전 6:19** ↔ **고전 3:16**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 다른 권 — **창 2:24** (둘이 한 육체), **갈 5:19-21** (육체의 일 목록).
- 정경 흐름 — 몸의 거룩은 7장의 결혼·독신 논의와 8장의 자유의 한계로 이어지는 토대가 된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다툼 곁에 앉는다.
- **멈춤 1**: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너희도 이와 같았으나… 씻음과 거룩함과 의"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값으로 산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한 줄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성령의 전 된 몸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움은 이미 잘못이다
- [x]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 [x] 너희도 이와 같았으나 씻음과 거룩함과 의를 받았다
- [x]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 [x]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
- [x]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 [x] 값으로 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6장은 그 호(arc)에서 **'분열에서 한 몸으로'의 윤리적 국면**이다.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송사와 몸을 음란에 내어주는 일은 둘 다 한 몸을 찢는 일이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거룩(Holiness)**에 닿는다 — "거룩한 자를 그대로 거룩하게"의 결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부르는 자리에서 미리 비친다. 구약의 임재가 성막·성전이라는 건물에 거했다면, 여기서는 "값으로 산"(20절) 사람의 몸이 곧 성소(naos)가 된다 — 임재가 건물에서 몸으로 옮겨지는 구속사의 결을 비추는 좌표에 6장이 선다. 분열하는 고린도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11절)로 다시 한 몸이 되는 운동의 한 국면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세상 법정(불의한 자 앞)→성도 앞·차라리 불의 당함(1·7절) / 옛 목록의 자아→씻음·거룩·의(apolouo, 11절) / 내 몸의 자유→값으로 산 몸(soma, 19-20절) / 건물의 전→몸이 성령의 전(naos, 19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바깥 권위에서 안의 거룩으로, 다툼에서 몸의 영광으로 미는 운동이다. 송사 책망 → 차라리 불의 당함 → 자유와 몸의 가름 → "성령의 전 된 몸으로 영광". 정지된 윤리 규정이 아니라, 찢긴 한 몸이 거룩으로 다시 세워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형제 간 송사와 음행의 책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찢기고 더럽혀진 한 몸이 값으로 산 거룩한 몸으로 회복되는 통치**다. 고린도는 권리를 두고 다투고 몸을 자유의 이름으로 내어주는 곳이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19절) 함으로, 행위 너머에서 사람 전체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법정과 음란이지만, 아래는 손익을 따지는 자아가 아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7절)는 자아 — 몸과 욕망까지 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 전체의 회복이다. 임재가 건물에서 몸으로 옮겨져, 한 사람의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 권리를 이기고 내 몸을 내 것으로 쥐려는 그 자리에서, 값으로 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이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세상 법정에 형제를 세우는 자리 곁과 "성령의 전 된 몸" 곁에 나란히 세운다. "~하지 말라"는 금령으로 닫지 않고, 값으로 사신 바 되어 내 것이 아닌 몸이 영광을 돌리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가장 좋은 길은 권리의 승리가 아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몸을 성소로 내어드리는 거룩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성령의 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값으로 산 몸의 거룩이, 결혼과 독신을 두고 "각각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부르심의 분별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한다"(2-3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판단의 권한이 성도에게 있다 한다.
- 그 판단의 때와 모양은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7절)인가?

- 고발보다 손해를 택하라 한다.
- 그 까닭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모든 것이 가하나"(12절)의 자유와 몸의 매임은 어떻게 한 장에 있는가?

- 자유의 구호와 "내 것이 아님"이 나란히 놓인다.
- 그 사이는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18절)는 다른 죄와 어떻게 다른가?

- 음행을 몸 안의 죄로 따로 둔다.
- 그 다름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19절)는 무엇을 뒤집는가?

-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한다.
- 그 뒤집힘의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몸이 어떻게 "성령의 전"(19절)이 되는가?

- 건물이 아닌 몸이 성소로 놓인다.
- 그 옮겨짐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7장

1CO-007 · 서신서 · 헬라어

> 결혼한 자도 독신도 각각 자기 은사가 있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 때가 단축하였으니 주의 일에 매이라.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답변의 자리 —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1절)로 열림.
- 소품 — 여러 상태의 사람: 결혼·독신·과부·처녀·종·자유인.
- 잣대 소재 — "각각"·"부르심 그대로"(7·17·20·24절).
- 그늘 소재 —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세상 외형은 지나감"(29·31절). klesis·charisma·kairos.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자기 말과 주의 말을 자꾸 구분한다("명령이 아니라", 6·25절).
- "그대로 지내라"가 잔물결처럼 반복된다.
-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29절)가 가운데를 가로지른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 물음에 답하며 열림.
- 40절: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 조심스러운 권면으로 닫힘.
- 물음에서 권면으로, 머무름에서 주께 매임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결혼한 부부 / 독신 / 과부 / 처녀 /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자 / 종·자유인.
- 상황: 서로 분방하지 말라(5절), 버리지 말라(12-13절), 부르심 그대로 머물라(20·24절).
- 사상의 핵 —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24절).
- 토대 —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35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 결혼과 절제 — "각각 자기 은사가 있으니".
- 컷 2 (10-16): 이혼과 믿지 않는 배우자 — "버리지 말라".
- 컷 3 (17-24): 부르심 그대로 — 할례·종·자유인.
- 컷 4 (25-35): 처녀와 때 —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 컷 5 (36-40): 처녀와 과부 —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

6 — (1) 원어 카드

- klesis(κλῆσις) — 부르심. 20절 "그 부르심 그대로".
- charisma(χάρισμα) — 은사. 7절 "각각 자기 은사가 있으니".
- apolyo(ἀπολύω) — 버리다·놓아주다. 11-13절 이혼 문맥.
- amerimnos(ἀμέριμνος) — 염려 없음. 32절 "염려 없기를".
- kairos(καιρός) — 정해진 때. 29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 euschemon(εὐσχήμων) — 단정함·이끌림 없음. 35절 "이끌려 흐트러짐이 없이".

6 — (2) 문학 구조

- 결혼·절제(1-9) → 이혼·믿지 않는 배우자(10-16) → 부르심 그대로(17-24) → 처녀와 때(25-35) → 마침(36-40).
- "각각… 그대로"의 반복(7·17·20·24절).
- 때의 짧음(29-31)이 모든 상태 위에 그늘로 깔린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1절)는 고린도가 보낸 편지에 답하는 형식 — 배경으로만.
- "임박한 환난"(26절)은 당시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둠 — 배경으로만.
-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31절)은 무대 비유의 그림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7:19 ↔ 갈 5:6 (할례·무할례가 아니라)
- 고전 7:10-11 ↔ 막 10:9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 고전 7:23 ↔ 고전 6:20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 고전 7:31 ↔ 요일 2:17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라" 하고,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되 절제하지 못하면 합하라 하며 "각각 자기 은사가 있다" 한다. 결혼한 자는 갈리지 말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하며, "각각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나 무할례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다. 처녀에 대하여는 명령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다며 "임박한 환난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고,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아내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한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장가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뉜다" 하고, "이는 너희를 얽매려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한다. 끝으로 "아내는 남편 살아 있는 동안 매였으나 죽으면 주 안에서 자유로이 시집갈 수 있되,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각각 부르심 그대로 —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 초벌 부제: "결혼과 독신의 여러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김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고린도 편지 답변·임박한 환난·세상 외형 비유)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독신/결혼의 우열을 단정하지 않도록 → "각각 자기 은사"(7절)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40절)을 권면 그대로 보존.
- "명령이 아니라"(6·25절)를 권위 논쟁으로 끌지 않도록 → 본문이 둔 구분만 보존.
-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29절)를 시한 교리로 단정하지 않도록 → 지나감의 결만 보존, 의문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의 여러 자리를 다루며 "각각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고, 때가 단축하였으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로 모으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고린도의 물음에 답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해 각각 배우자를 두되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고 "각각 자기 은사가 있다"(7절) 한다. 결혼한 자는 갈리지 말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하며,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24절) 한다. 처녀에 대하여는 명령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다며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29·31절) 하고, 장가간 자는 마음이 나뉜다며 "이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35절) 한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40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답변의 자리("너희가 쓴 문제"). 여러 상태의 사람. klesis·charisma·kairos.
2 첫 느낌·분위기	자기 말과 주의 말의 구분. "그대로 지내라"의 반복.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3 시작과 끝	시작 —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1). 끝 — "더 복이 있으리로다"(40). 권면으로 열고 닫음.
4 등장인물·상황·사상	부부·독신·과부·처녀·종·자유인. 사상 — "부르심 그대로"(24), "주를 섬기게"(35).
5 장면 컷	컷 1 결혼과 절제(1-9). 컷 2 이혼(10-16). 컷 3 부르심 그대로(17-24). 컷 4 처녀와 때(25-35). 컷 5 마침(36-40).
6 의문·발견·정보	결혼·독신 다 길로 열림. "명령이 아니라"의 구분. "각각"의 잣대. 때의 짧음.
7 동영상	여러 상태를 다룸 → 부르심 그대로 → 때의 짧음 →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김"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각각 부르심 그대로 —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부제 — "결혼과 독신의 여러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김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여러 부르심의 자리를 걸으며 "각각 부르심 그대로"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각각 자기 은사**: 결혼도 독신도 죄가 아니라 은사로 놓인다(7·28절).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 **결 2 — 부르심 그대로**: 할례·종·자유인 — 외형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라(20·24절). 부르심이 잣대다.

3. **결 3 —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김**: 때가 단축하였으니(29절), 결혼이든 독신이든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께 매이라(35절).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7:23** ↔ **고전 6:20**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고전 7:19** ↔ **고전 7:24** (부르심이 잣대).
- 다른 권 — **막 10:9**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요일 2:17** (세상은 지나감).
- 정경 흐름 — 6장의 "값으로 산 몸"이 7장의 "부르심 그대로"로 이어지고, 8장의 "자유의 한계"로 번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결혼이냐 독신이냐를 묻는 자리에 앉는다.
- **멈춤 1**: "각각 자기 은사가 있으니"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부르심 그대로 주를 섬기라*는 한 줄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여러 부르심의 자리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각각 자기 은사가 있다 (결혼도 독신도)
- [x]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 [x]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 [x]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 [x] 때가 단축하였고 세상 외형은 지나간다
- [x]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 [x]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7장은 그 호(arc)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일상의 부르심을 사는 자리'**다. 6장이 몸을 "값으로 산" 성령의 전으로 세웠다면, 7장은 그 값으로 산 사람이 결혼·독신·종·자유라는 일상의 자리를 어떻게 사는가를 보인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거룩(Holiness)**이 외형의 변경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는 자리다 —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24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29절)는 부활(15장)을 향해 기울어 가는 종말론적 그늘을 미리 드리운다 — 모든 일상의 상태가 지나가는 때 위에 놓이고, 주를 섬김 하나로 모인다.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운동의 빛 아래, 일상이 "주의 일"로 재배열되는 좌표에 7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결혼이냐 독신이냐(상태)→부르심 그대로(klesis, 20·24절) / 세상 일·아내를 기쁘게→주의 일·주를 기쁘게(32절) / 마음이 나뉨→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김(35절) / 머무는 때→때가 단축하여진 고로(kairos, 29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상태에서 부르심으로, 세상 일에서 주의 일로 미는 운동이다. 여러 상태의 다룸 → 부르심 그대로 → 때의 짧음 →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김". 정지된 혼인 규례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한 분께 매이도록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결혼·이혼·독신·과부의 처신 규례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일상의 모든 자리가 "주를 섬김" 하나로 재배열되는 통치**다. 고린도는 결혼과 독신을 두고 우열을 다투는 곳이다. 바울은 "각각 자기 은사"(7절)와 "부르심 그대로"(24절)를 둠으로, 상태의 변경 아래에서 사람 전체를 부르신 분께 매는 마음을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혼인 규례지만, 아래는 결혼했든 독신이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32절)로 흐르는 자아 — 지성·감정·의지·욕망까지 흐트러짐 없이 한 분께 매이는 사람 전체의 회복이다. 때가 단축하였다는 그늘 아래, 일상이 곧 주의 일로 거룩해진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가 선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묻는 한 방향이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여러 부르심의 자리 곁에 나란히 세운다. "결혼하라" 또는 "독신하라"는 명령으로 닫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35절) 하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가장 좋은 길은 상태의 선택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 분께 매이는 충성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부르심 그대로.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부르심 그대로 주를 섬기는 자유가, 우상 제물을 두고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형제를 위한 자유의 한계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명령이 아니라 내 의견"(6·25절)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 자기 권면과 주의 명령을 자꾸 나눈다.
- 그 경계는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믿지 않는 배우자로 "거룩하게 된다"(14절)는 무엇인가?

-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거룩해진다 한다.
- 그 거룩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29절)의 그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모든 상태가 짧아진 때 위에 놓인다.
- 그 때의 결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각각 자기 은사"(7절)에서 결혼·독신이 둘 다 은사인 까닭은?

- 두 상태를 다 은사로 둔다.
- 그 은사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아내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29절)는 어디까지인가?

- 가짐과 안 가짐을 한 결로 본다.
- 그 폭은 관찰로는 보류.

Q6. "부르심 그대로"(20·24절)와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음(21절)은 어떻게 함께 있는가?

- 머무름과 자유 얻음이 나란히 놓인다.
- 그 사이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8장

1CO-008 · 서신서 · 헬라어

>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의 제물 앞에서, 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내 자유를 내려놓는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우상의 신전과 식탁 —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10절).
- 소품 —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eidolothyton).
- 두 인물 — "지식 있는 자"(강한 자)와 "약한 형제".
- 잣대 소재 — "덕을 세움"(oikodome)과 "실족"·"거리끼는 것"(proskomma). gnosis·agape·syneidesis.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첫 문장이 지식과 사랑을 맞세운다(1절).
- 강한 자유에서 약한 사람으로 무게가 옮겨간다.
-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13절)로 닫힌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 지식과 사랑을 맞세우며 열림.
- 13절: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 자유를 접는 결단으로 닫힘.
- 지식에서 사랑으로, 자유에서 절제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지식 있는 자"(강한 자) / "약한 형제"(7·9-12절) / 토대로 "한 하나님·한 주"(6절).
- 상황: 강한 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먹으나(4절), 약한 자는 우상 제물로 여겨 양심이 더러워짐(7절).
- 사상의 핵 —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9절).
- 무게 —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11절), "형제에게 죄 지음이 그리스도에게 죄 지음"(1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지식과 사랑 —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을 세움".
- 컷 2 (4-8): 우상과 한 하나님 — "음식은 우리를 내세우지 못한다".
- 컷 3 (9-13): 약한 형제와 자유 —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6 — (1) 원어 카드

- gnosis(γνῶσις) — 지식.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 agape(ἀγάπη) — 사랑. 1절 "사랑은 덕을 세운다".
- oikodome(οἰκοδομή) — 세움·집을 지음. 1절 "덕을 세운다".
- eidolothyton(εἰδωλόθυτον) — 우상의 제물. 1·4·7·10절.
- syneidesis(συνείδησις) — 양심. 7·10·12절 "약한 양심".
- proskomma(πρόσκομμα) — 걸림돌·거리끼는 것. 9절 "거리끼는 것".

6 — (2) 문학 구조

- 지식과 사랑의 잣대(1-3) → 우상과 한 하나님(4-8) → 자유의 한계와 결단(9-13).
- "지식"(1·7·10·11절)과 "사랑·덕을 세움"의 맞섬.
- 원칙(1절)과 결단(13절)의 쌍.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당시 신전 식당에서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 관습 — 배경으로만.
- 6절 "한 하나님… 한 주"는 신명기 6:4 "여호와는 한 분"을 받음 — 배경으로만.
- "약한 양심"(7절)은 우상에 익숙했던 회심자의 처지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8:6 ↔ 신 6:4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 고전 8:1 ↔ 고전 13:4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 고전 8:9 ↔ 롬 14:13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
- 고전 8:11 ↔ 롬 14:15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으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안다 하는 자는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다" 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한다.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떤 이는 우상에 익숙하여 우상 제물로 알고 먹어 약한 양심이 더러워진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한다.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라, 네가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을 약한 자가 보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약한 형제가 멸망하니, 형제에게 죄를 지어 양심을 상하게 함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한다. 끝으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을 세움 — 약한 형제를 위하여"**
- 초벌 부제: "지식의 자유에서, 약한 형제를 위한 사랑의 절제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신전 식당 관습·신 6:4 받음·약한 양심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1절)를 반(反)지식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지식과 사랑의 맞섬만 본문 그대로 보존.
-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4절)를 형이상학 단정으로 끌지 않도록 → 약한 양심의 처지와 함께 보존.
- "형제에게 죄 지음이 그리스도에게 죄 지음"(12절)의 까닭을 본문 밖에서 채우지 않도록 → 단언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두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를 잣대로, 약한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스스로 접으라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다 지식이 있으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1절) 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6절)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이에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상에 익숙한 약한 자는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7절) 하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8절)며 음식을 중립으로 둔다. 그러면서도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9절), 그 약한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11절) 자라 하며,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13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신전의 식탁. 우상 제물 고기. 두 인물(강한 자·약한 형제). gnosis·agape·oikodome·syneidesis.
2 첫 느낌·분위기	지식과 사랑의 맞섬(1절). 강함에서 약함으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로 닫힘.
3 시작과 끝	시작 —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을 세움"(1). 끝 —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13). 지식에서 사랑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강한 자·약한 형제 / 한 하나님·한 주. 사상 — "자유가 거리낌 되지 않게"(9), "위하여 죽으신 형제"(11).
5 장면 컷	컷 1 지식과 사랑(1-3). 컷 2 우상과 한 하나님(4-8). 컷 3 약한 형제와 자유(9-13).
6 의문·발견·정보	지식의 두 번 뒤집힘. 중립과 끊음. "덕을 세움"의 반복. 신 6:4 받음.
7 동영상	지식과 사랑 → 우상과 한 하나님 → 약한 형제 →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을 세움". 부제 — "지식의 자유에서, 약한 형제를 위한 사랑의 절제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신전 식탁과 약한 형제 곁을 걸으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지식은 교만, 사랑은 덕을 세움**: 아는 것은 나를 부풀리나 사랑은 한 집을 짓는다(1절). 잣대가 사랑이다.

2. **결 2 — 음식은 중립**: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8절). 먹고 안 먹음 자체가 잣대가 아니다.

3. **결 3 — 형제를 위한 절제**: 약한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11절) 자라, 그를 위해 중립한 음식조차 영원히 접는다(13절).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8:1** ↔ **고전 13:4**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전 8:9** ↔ **고전 10:23-24** (남의 유익을 구하라).
- 다른 권 — **신 6:4** (여호와는 한 분), **롬 14:13-15** (형제 앞에 걸림돌·위하여 죽으신 형제).
- 정경 흐름 — 8장의 "형제를 위한 자유의 한계"가 9장의 "권리를 쓰지 않는 자유"와 10장의 "남의 유익을 구하라"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묻는 자리에 앉는다.
- **멈춤 1**: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내 자유가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게"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형제를 위해 자유를 접는다*는 한 줄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약한 형제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 [x]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 [x]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 [x] 내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라
- [x] 약한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다
- [x] 형제에게 짓는 죄가 그리스도에게 짓는 죄다
- [x] 형제를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수 있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8장은 그 호(arc)에서 **'분열에서 한 몸으로'의 자유 윤리 국면**이다. 강한 자의 옳은 지식이 약한 형제를 찢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1절)로 한 몸을 잇는 길을 연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곧장 **사랑(Love)**에 닿는다 — 13장 사랑장의 "교만하지 아니하며"가 8장에서 이미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로 울린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11절)라는 한 마디는, 십자가의 지혜(1-2장)가 식탁의 윤리로 구체화된 결이다. 분열하는 고린도가 약한 자를 위해 강한 자가 자기를 접는 운동으로 한 몸이 되는 좌표에 8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지식(gnosis)→사랑(agape, 1절) / 교만하게 함→덕을 세움(oikodome, 1절) / 내 자유→형제의 양심·실족하지 않게(proskomma, 9·13절) / 나의 옳음→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1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아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내 자유에서 형제의 덕으로 미는 운동이다. 지식과 사랑의 잣대 → 우상과 한 하나님 → 약한 형제 →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정지된 윤리 규정이 아니라, 내 권리가 형제를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형제를 살리는 한 몸의 통치**다. 고린도의 강한 자는 옳은 지식을 가졌고, 그 지식은 사실이다 —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옳음이 약한 형제를 멸망케 할 수 있음을(11절)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음식과 양심의 문제지만, 아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아가 "사랑은 덕을 세운다"로 형제를 짓는 자아로 바뀌는 사람 전체의 회복이다. 지식은 나를 부풀리나(physioo), 사랑은 공동체를 짓는다 — 옳음보다 형제의 살아남이 한 몸의 진짜 잣대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서, 옳음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택해 내 자유를 접는 사랑이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지식의 자유 곁과 약한 형제 곁에 나란히 세운다. "먹지 말라" 또는 "먹어도 된다"는 규정으로 닫지 않고, 옳음을 가졌더라도 형제를 위해 그것을 접는 그 사랑의 운동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가장 좋은 길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한 집을 짓는 사랑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덕을 세우는 사랑.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형제를 위해 자유를 접는 사랑이, 사도의 권리조차 쓰지 않는 바울의 자기 비움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1절)는 무엇을 맞세우는가?

- 지식과 사랑이 양 끝으로 놓인다.
- 그 맞섬의 결은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안다 하는 자는 아직 알지 못한다"(2절)는 어떤 앎인가?

- 아는 것이 도리어 미달로 놓인다.
- 그 앎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음식이 "중립"(8절)인데 "영원히 끊겠다"(13절)는 어떻게 한 장에 있는가?

- 중립과 끊음이 나란히 놓인다.
- 그 사이는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형제에게 짓는 죄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죄"(12절)가 되는가?

- 형제와 그리스도가 한 결로 이어진다.
- 그 이어짐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다"(3절)는 무엇을 뒤집는가?

- 내 앎에서 하나님이 아심으로 옮겨간다.
- 그 뒤집힘의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약한 양심"(7절)은 어디까지 약함인가?

- 같은 음식을 두고 양심이 갈린다.
- 그 약함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9장

1CO-009 · 서신서 · 헬라어

> 권리를 손에 쥔 자가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자기를 비운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두 무대 — 권리를 변론하는 법정 같은 자리(1-18절)와 경기장(24-27절).
- 직업 비유 소품 — 군인·농부·목자·곡식 떠는 소(7-9절), 성전 일꾼·제단(13절).
- 상 소품 —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아니할 것"(stephanos, 25절), "달음질"·"권투"(24·26절).
- "권리"(exousia)가 거듭 울리다 "쓰지 아니하였노라"(15절)로 뒤집힌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변론하는 목소리 — 연이은 물음("아니냐")으로 권리를 증명한다.
- 뒤집힘 — 가졌다고 증명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돌린다.
- 끝의 무대 전환 — 변론장에서 경기장의 절제하는 선수로 옮겨간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 권리를 묻는 물음으로 열림.
- 27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 자기 단속으로 닫힘.
- 자유에서 자기 매임으로, 값없음에서 상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나(바울) / 바나바(6) / 다른 사도·주의 형제·게바(5) / 비유 속 군인·농부·목자(7) / 성전 일꾼(13) / 경주하는 자들(24).
- 상황: 권리를 한 칸씩 쌓되(7-14절), 그 권리를 쓰지 않음(15절)으로 돌린다.
- 사상의 핵 —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19절).
- "되었다"의 반복 — 유대인·율법 아래·약한 자에게 "같이"(20-22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2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내가 사도가 아니냐" — 권리의 변론.
- 컷 2 (7-14): 군인·농부·목자·소·성전 일꾼 — 일꾼이 먹는 정당함.
- 컷 3 (15-18): "쓰지 아니하였노라" — 권리를 내려놓음, "값없이".
- 컷 4 (19-23):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노라" — 종이 된 자유.
- 컷 5 (24-27): 경주·권투·절제 —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

6 — (1) 원어 카드

- exousia(ἐξουσία) — 권리·권한·자유. 거듭 나오다 "쓰지 않음"으로 돌려진다.
- apostolos(ἀπόστολος) — 사도·보냄받은 자. 1절.
- euangelion(εὐαγγέλιον) — 복음. "복음을 위하여"(23절)의 결.
- oikonomia(οἰκονομία) — 맡은 직분·청지기직. 17절 "사명".
- stephanos(στέφανος) — 면류관·화관. 25절 "썩지 아니할 것".
- adokimos(ἀδόκιμος) — 검증에 떨어진·자격 미달. 27절 "버림을 당할까".

6 — (2) 문학 구조

- 권리의 변론(1-14) → 권리의 포기(15-18) → 종 됨의 자유(19-23) → 경기장의 절제(24-27).
- 쌓음(7-14)과 내려놓음(15-18)의 쌍.
- "되었다"의 반복으로 19-22절을 엮는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린도는 이스트미아 경기로 유명했다 — 경기 비유의 배경으로만.
- 9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4 인용 — 배경으로만.
- "부득불"(16절)은 강한 필연의 결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9:9 ↔ 신 25:4 (곡식 떠는 소)
- 고전 9:14 ↔ 눅 10:7 (일꾼이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함)
- 고전 9:19-22 ↔ 고전 10:33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얻게)
- 고전 9:24-25 ↔ 빌 3:14 (푯대를 향하여 달려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다"라며 권리를 변론한다. 군인·농부·목자가 자기 일로 먹듯, 복음 전하는 자도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한 칸씩 쌓는다. 그러더니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 돌린다. 부득불 맡겨진 사명이기에 값없이 전함이 자기 상이라 한다. 이어 "나는 모두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두의 종이 되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다 복음을 위해서"라 한다. 끝으로 경기장으로 무대를 옮겨, 절제하는 선수처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쓰지 않은 권리 —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 초벌 부제: "가진 권리를 쓰지 않는 자유, 복음을 위한 자기 단속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이스트미아 경기·신 25:4 인용·부득불)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여러 모습이 됨"(22절)을 처세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복음을 위하여"라는 본문의 이유만 보존.
- "버림을 당할까"(adokimos, 27절)를 구원론 단정으로 끌지 않도록 → 어휘 위치만 기록.
- 권리 포기를 율법화하지 않도록 → 바울 자신의 선택으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를 한 칸씩 변론하다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자유로 돌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종 됨과 자기 절제로 흐르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로 자기 권리를 묻고, 군인·농부·목자·곡식 떠는 소·성전 일꾼의 비유로 일꾼이 먹는 정당함을 쌓는다. 그 정점에서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노라"(15절) 돌리며, 부득불 맡겨진 사명이기에 값없이 전함이 자기 상이라 한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19절) 하고, 유대인·약한 자에게 "같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22절)고 한다. 끝은 경기장으로 옮겨, 절제하는 선수처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자기 단속으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변론장(1-18) → 경기장(24-27). 군인·농부·목자·소(7-9). exousia·stephanos가 거듭.
2 첫 느낌·분위기	변론의 물음("아니냐"). 권리의 뒤집힘. 끝의 무대 전환.
3 시작과 끝	시작 — "자유인이 아니냐"(1). 끝 — "몸을 쳐 복종하게"(27). 자유에서 자기 매임으로.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상황·사상	나·바나바·게바 / 비유 속 일꾼들 / 경주자들. 사상 — 19절의 자유/종 역설, "되었다"의 반복.
5 장면 컷	컷 1 변론(1-6). 컷 2 일꾼의 정당함(7-14). 컷 3 권리 포기(15-18). 컷 4 종 됨(19-23). 컷 5 경기장(24-27).
6 의문·발견·정보	증명의 목적이 포기. "여러 모습"의 경계. "값없이"가 상. adokimos의 두려움. 신 25:4 인용.
7 동영상	변론 → 일꾼 비유 → 권리 포기 → 종 됨 → 경기장 절제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쓰지 않은 권리 —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부제 — "가진 권리를 쓰지 않는 자유, 복음을 위한 자기 단속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변론장과 경기장을 걸으며 "복음을 위하여"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쌓음과 내려놓음**: 권리를 한 칸씩 증명하고(7-14절), 그 정점에서 "쓰지 아니하였노라"(15절)로 통째 뒤집는다.

2. **결 2 — 자유와 종 됨**: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19절). 풀린 자가 스스로 묶인다.

3. **결 3 — 권리에서 절제로**: 변론장이 경기장으로 옮겨가, 상을 향해 절제하는 선수가 "몸을 쳐 복종하게"(27절) 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9:19-22** ↔ **고전 10:33**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얻게).
- 다른 권 — **신 25:4** (곡식 떠는 소), **눅 10:7** (일꾼의 삯), **빌 3:14** (푯대를 향하여).
- 정경 흐름 — 사도의 권리 포기는 9장 앞뒤의 "약한 자를 위한 자유 절제"(8·10장)와 한 논증을 이룬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변론하는 바울 곁에 앉는다.
- **멈춤 1**: 쌓은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노라" 돌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노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선수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졌기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복음을 위하여" 한 방향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바울은 사도의 권리가 있다
- [x]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 [x] 값없이 전함이 자기 상이다
- [x] 자유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 [x]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 [x] 다 복음을 위해서다
- [x]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이 책은 분열과 윤리 문제로 흔들리는 한 교회에 답하는 목회 서신이며, 매 장이 그 운동의 한 국면이다. 9장은 그 호(arc)에서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한 본보기**다. 8장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며 우상 제물 앞 약한 자를 위한 자유 절제를 말했고, 10장이 광야 교훈으로 그 절제를 잇는다. 그 사이에서 9장은 바울 자신을 본보기로 세운다 — 가장 큰 권리를 가진 사도가 그 권리를 안 쓰는 자유. 권리를 다투는 고린도 한복판에서, 권리를 내려놓는 한 사람을 보임으로 "한 몸"을 향한 운동을 살아낸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사랑(마 22)** — 자유를 약한 자를 위해 쓰는 사랑 — 의 결에 닿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가진 권리(exousia)→쓰지 않는 자유 / 자유인→복음을 위한 종(19절) / 권리의 변론→자기 단속의 절제(2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권리에서 비움으로 미는 운동이다. 권리의 쌓음 → "쓰지 아니하였노라"의 포기 → "여러 모습이 되었노라"의 종 됨 → 경기장의 절제. 정지된 변론이 아니라, 가짐이 비움을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사도의 권리 변론과 경기 비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권리를 무기로 쥐지 않는 마음의 회복**이다. 분열하는 고린도는 저마다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다. 바울은 가장 큰 권리를 가진 자로서 그것을 안 씀으로 다른 길을 산다. 빙산의 수면 위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는 변론이지만, 아래는 자기를 비워 복음의 한 방향에 자신을 거는 사람 전체의 통치다 — 손익을 계산하는 자아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자"(23절) 모든 것을 행하는 자아. 권리를 가졌으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행위 너머에서 회복된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게 권리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가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권리를 쌓는 바울 곁과 그것을 내려놓는 바울 곁에 나란히 세운다. "~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졌기에 비울 수 있는 그 자유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복음을 위하여.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자기를 절제하는 한 사람의 자유가, 광야에서 넘어진 옛 세대의 경계로 —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교훈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자유의 한계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권리를 길게 증명한 까닭이 사용이 아니라 포기라면, 증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7-14절의 쌓음과 15절의 내려놓음이 한 쌍을 이룬다.
- 증명의 목적은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22절)는 어디까지인가?

- 유대인·율법 아래·약한 자에게 "같이"가 나열된다.
- 경계는 본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위치만 보존.

Q3. 받을 수 있는 삯을 안 받는 것이 왜 "상"(18절)이 되는가?

- "값없이"가 자기 상이라 한다.
- 안 받음이 상이 되는 결의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4. 끝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adokimos, 27절)는 무엇을 담는가?

- 상을 말하다 탈락의 두려움으로 닫힌다.
- 신학적 함의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Q5. 변론장에서 경기장으로의 무대 전환(24절)은 무엇을 잇는가?

-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가 한 장에 놓인다.
- 둘을 잇는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부득불 할 일"(16절)과 "자원함"(17절)의 사이는 무엇인가?

- 강제와 자원이 한 단락에 함께 있다.
- 그 사이는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으므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10장

1CO-010 · 서신서 · 헬라어

> 다 같은 구름·바다·반석을 지났으나 다 넘어졌다. 자유를 가진 자에게 "남의 유익을 구하라"가 울린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무대 — 광야(1-13절), 식탁·잔(14-22절), 시장과 초청받은 집(23-30절).
- 광야 소품 — 구름·바다·반석(1-4절), 만나·물의 "신령한 음식·음료".
- 식탁 소품 — "축복의 잔"·"떼는 떡"(16절), "주의 상"과 "귀신의 상"(21절).
- 일상 소품 — 시장에서 파는 것(25절), 거듭되는 "양심"(syneidesis).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다"의 반복(1-4절)이 "그러나 그 다수를"(5절)에서 꺾인다.
- 옛 광야가 오늘의 거울("본보기", 6·11절)로 놓인다.
- 무대가 들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시장으로 옮겨간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로 지났다" — 옛 광야로 열림.
- 31·33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 일상과 남의 유익으로 닫힘.
- 광야에서 식탁으로, 넘어짐에서 남의 유익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우리 조상들(1) / 모세(2) / 넘어진 광야 세대 / 나(바울)·너희 / 불신자(27)·"어떤 사람"(28).
- 상황: 다 같은 은혜를 누린 조상들이 음행·우상·원망으로 넘어짐(7-10절), 그것이 본보기(11절).
- 사상의 핵 — "떡이 하나이므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라"(17절).
- 두 상의 갈림 —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니라"(21절). 못 — "남의 유익을 구하라"(24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광야의 조상들 — 다 누렸으나 넘어짐.
- 컷 2 (6-13): 본보기 — 음행·우상·원망의 거울, "피할 길".
- 컷 3 (14-22): 잔과 떡의 참여 — "한 몸", 두 상 겸하지 못함.
- 컷 4 (23-30): 시장과 초청 — 양심, "남의 유익을 구하라".
- 컷 5 (31-33):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6 — (1) 원어 카드

- typos(τύπος) — 본·자국·모형. 6·11절 "본보기".
- koinonia(κοινωνία) — 교제·참여·연합. 16·18·20절 "참여함".
- eidololatria(εἰδωλολατρία) — 우상 숭배. 14절 "우상 숭배를 피하라".
- peirasmos(πειρασμός) — 시험. 13절 "감당할 시험".
- syneidesis(συνείδησις) — 양심. 25·27·28·29절.
- doxa(δόξα) — 영광.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6 — (2) 문학 구조

- 광야의 거울(1-13) → 식탁의 한 몸(14-22) → 일상의 적용(23-30) → 영광의 결론(31-33).
- 거울(1-13)과 적용(23-30)의 쌍.
- "참여함"(koinonia)이 잔·떡과 우상 제물에 같은 단어로 쓰인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4절 "그 반석"은 출 17장·민 20장의 광야 반석을 끌어온다 — 배경으로만.
- 7절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는 출 32장 금송아지 인용 — 배경으로만.
- 당시 시장 고기는 우상 제사를 거친 경우가 많았다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10:7 ↔ 출 32:6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다)
- 고전 10:4 ↔ 민 20:11 (반석에서 난 물)
- 고전 10:24 ↔ 빌 2:4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 고전 10:17 ↔ 고전 12:12-13 (많은 지체가 한 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광야를 거울로 든다.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로 지나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으나, 그 다수가 광야에 쓰러졌다고 한다. 그 일이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으니 음행·우상·원망을 따르지 말라 하고,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감당할 시험밖에 없고 피할 길도 내신다고 한다. 식탁으로 옮겨,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떡은 몸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이니 우리가 한 몸이라 한다. 그러니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지 못한다고 한다. 일상으로 내려와, 시장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되 누가 제물이라 하면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다. 끝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광야의 거울, 식탁의 한 몸 — 남의 유익을 구하라"**
- 초벌 부제: "광야의 거울에서 식탁의 한 몸으로, 일상의 남의 유익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출 32장 인용·광야 반석·시장 고기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4절)를 알레고리 교리로 확장하지 않도록 → 본문이 둔 한 줄만 보존.
- "피할 길"(13절)을 자력 극복 교훈으로 굳히지 않도록 → 어휘 위치만 기록.
- 두 상의 겸함 금지(21절)를 율법 조항으로 굳히지 않도록 → "참여함"의 결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 세대의 넘어짐을 본보기로 들어, 잔과 떡의 "한 몸" 참여를 지나, 일상의 식탁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로 흐르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로 지나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으나 그 다수가 광야에 쓰러졌음을 거울로 든다. 그 일이 "우리의 본보기"(11절)로 기록되었으니 음행·우상·원망을 따르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다. 식탁으로 옮겨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떡은 몸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이니 한 몸이라"(16-17절) 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지 못한다(21절) 한다. 일상으로 내려와 시장 것을 양심을 위해 묻지 말되 "남의 유익을 구하라"(24절) 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31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광야(1-13) → 식탁(14-22) → 시장(23-30). 구름·반석·잔·떡·두 상. typos·koinonia·syneidesis.
2 첫 느낌·분위기	"다"의 반복이 "그 다수를"에서 꺾임. 옛 거울이 오늘로. 들→식탁→시장.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광야의 조상들(1). 끝 — "하나님의 영광"(31). 넘어짐에서 남의 유익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조상들·모세 / 나·너희 / 불신자. 사상 — "한 몸"(17), 두 상(21), "남의 유익"(24).
5 장면 컷	컷 1 광야(1-5). 컷 2 본보기(6-13). 컷 3 한 몸(14-22). 컷 4 일상(23-30). 컷 5 영광(31-33).
6 의문·발견·정보	다 누렸으나 갈림. "피할 길"의 위치. 아무것도 아님과 귀신. 출 32장 인용.
7 동영상	광야 거울 → 본보기 → 한 몸의 식탁 → 일상의 남의 유익 → 영광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광야의 거울, 식탁의 한 몸 —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부제 — "광야의 거울에서 식탁의 한 몸으로, 일상의 남의 유익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광야와 식탁과 시장을 걸으며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거울과 적용**: 광야 세대의 넘어짐(1-13절)을 들어 오늘의 식탁(14-30절)에 비춘다. "본보기"가 거울이다.

2. **결 2 — 한 몸의 참여**: "떡이 하나이므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라"(17절). 잔과 떡이 한 몸으로 모인다.

3. **결 3 — 자유에서 남의 유익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23절)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24절)로 자유가 사랑으로 기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10:17** ↔ **고전 12:12-13** (많은 지체가 한 몸).
- 다른 권 — **출 32:6** (먹고 마시며 뛰놀다), **민 20:11** (반석의 물), **빌 2:4** (남의 일도 돌봄).
- 정경 흐름 — 광야의 본보기는 8·9장의 "약한 자를 위한 자유 절제"를 옛 세대의 거울로 다시 비춘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광야의 조상들을 거울로 보는 자리에 앉는다.
- **멈춤 1**: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떡이 하나이니 우리가 한 몸이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남의 유익을 구하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내 자유가 한 몸을 위해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식탁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조상들이 다 같은 은혜를 누렸다
- [x] 그 다수가 광야에 넘어졌다
- [x] 그 일이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다
- [x] 잔과 떡은 그리스도에 참여함이다
- [x] 떡이 하나이니 우리가 한 몸이다

- [x] 두 상을 겸하지 못한다
- [x]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10장은 그 호(arc)에서 **'옛 언약 백성의 광야를 거울로 든 자리'**다. 출애굽의 광야는 구속사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시험받는 원형의 무대다. 바울은 그 옛 무대를 "우리의 본보기"(11절)로 끌어와, 새 언약의 식탁(잔·떡)으로 잇는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거룩(Holiness)** — 두 상을 겸하지 않는 구별 — 과 **사랑(Love)** — 남의 유익을 구함 — 이 한 식탁에서 만나는 자리다. 분열하는 고린도 한복판에서, "떡이 하나이므로 한 몸"(17절)은 9장의 자유 절제가 향하는 도착점을 미리 보인다. 광야의 흩어진 넘어짐에서 식탁의 한 몸으로 — 그 좌표에 10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광야의 넘어짐(typos)→식탁의 한 몸(17절) / 우상 숭배→주의 상 / 자기 유익→남의 유익(24절) / 일상→하나님의 영광(3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옛 거울에서 오늘 사랑으로 미는 운동이다. 광야의 본보기 → 한 몸의 참여 → 일상의 남의 유익 → 하나님의 영광. 정지된 옛이야기가 아니라, 거울이 오늘의 식탁을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광야 회고와 잔·떡·시장 고기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흩어진 자들이 한 몸으로 회복되는 통치**다. 분열하는 고린도는 저마다 먹고 마시며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 곳이다. 바울은 "떡이 하나이므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라"(17절) 함으로, 먹는 행위 아래에서 함께 됨을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잔·떡·시장 고기지만, 아래는 무엇에 참여하느냐로 정체가 빚어지는 사람 전체 — 자기 자유를 계산하는 자아가 아니라 남의 양심까지 품는 자아 — 의 회복이다. 거룩(두 상 겸하지 않음)과 사랑(남의 유익)이 행위 너머에서 한 몸을 짓는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 자유가 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식탁에서, "남의 유익"과 "한 몸"을 위해 그 자유를 거두는 사랑이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넘어진 광야 세대 곁과 한 몸의 식탁 곁에 나란히 세운다. "~를 금하라"는 율법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향하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한 몸.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식탁의 한 몸이 예배의 자리로 —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성찬과 한 몸을 분별하는 식탁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1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똑같이 누린 조상들이 왜 똑같이 서지는 못했는가?

- "다"의 반복(1-4절)이 "그 다수를"(5절)에서 꺾인다.
- 갈림의 까닭은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경고(음행·우상)와 위로("피할 길")가 왜 한 단락(13절)에 같이 있는가?

- 넘어짐의 거울 한복판에 피할 길 한 줄이 끼어 있다.
- 둘의 배치는 묵상으로 이월.

Q3.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19절)와 "귀신에게"(20절)의 사이는 무엇인가?

- 아무것도 아닌 것과 귀신이 한 단락에 함께 있다.
- 그 사이는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위치만 보존.

Q4. "참여함"(koinonia)이 잔·떡과 우상 제물에 같은 단어로 쓰이는 까닭은?

- 참여의 대상이 갈릴 뿐 참여 자체는 같은 결이다.
- 같은 단어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Q5.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는가(29절)?

- 자유를 말하다 남의 양심으로 닫는다.
- 그 결의 까닭은 관찰로는 보류.

Q6. "떡이 하나이므로 한 몸"(17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하나의 떡과 한 몸이 한 절에 놓인다.
- 연결의 결은 12장으로 이월하며 위치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11장

1CO-011 · 서신서 · 헬라어

> 떡과 잔이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함께 모인 식탁에서 "몸을 분별하라"가 울린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두 무대 — 예배의 자리(2-16절)와 함께 먹는 만찬(17-34절).
- 예배 소품 — "머리에 쓴 것"·"머릿수건"(4-7절), "긴 머리"(15절), "머리"(kephale) 관계(3절).
- 성찬 소품 — "떡"과 "잔"(23-25절), "내 몸"·"내 피로 세운 새 언약".
- 거듭되는 "기념하라"(anamnesis, 24·25절)와 "전하는 것"(katangello, 26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두 덩이 — 머리·머릿수건(앞)과 만찬(뒤)이 한 장에 갈린다.
- "칭찬"이 뒤집힘 — 2절 "칭찬하노라"가 17·22절 "칭찬하지 아니하노니"로.
- 한가운데 성찬의 무게 — "내 몸"·"새 언약"·"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나를 본받으라… 너희를 칭찬하노라" — 본받음과 칭찬으로 열림.
- 33-34절: "서로 기다리라… 그 남은 것은 내가 가서 바로잡으리라" — 기다림과 정돈으로 닫힘.
- 본받음에서 서로 기다림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나(바울)·너희 / 남자·여자·그리스도·하나님(3절 머리 관계) / 주 예수(23절 떡과 잔).
- 상황: 예배의 머리 가림 질서(앞) ↔ 만찬의 분쟁·파당(18-19절)·무질서(21절).
- 사상의 핵 —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26절).
- 먹음 앞의 자기 살핌 — "자기를 살피고… 몸을 분별하라"(28-2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 "나를 본받으라" — 칭찬.
- 컷 2 (3-16): 예배의 머리·머릿수건.
- 컷 3 (17-22): 흐트러진 만찬 — 분쟁·파당,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 컷 4 (23-26): 성찬의 전승 — "내 몸"·"새 언약",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 컷 5 (27-34): 자기 살핌·몸 분별 — "서로 기다리라".

6 — (1) 원어 카드

- kephale(κεφαλή) — 머리. 3절의 머리 관계.
- paradosis(παράδοσις) — 전승·받아 전함. 2·23절 "전하여 준 것".
- anamnesis(ἀνάμνησις) — 기억·상기. 24·25절 "기념하라".
- diatheke(διαθήκη) — 언약. 25절 "새 언약".
- katangello(καταγγέλλω) — 선포하다·전하다. 26절 "전하는 것".
- diakrino(διακρίνω) — 분간하다·분별하다. 29절 "몸을 분별하라".

6 — (2) 문학 구조

- 본받음(1-2) → 예배의 머리(3-16) → 흐트러진 만찬(17-22) → 성찬의 전승(23-26) → 분별과 정돈(27-34).
- 흐트러짐(17-22)과 바로잡음(23-34)의 쌍.
- "전하여 준 것"(paradosis)이 양끝(2·23절)에 놓여 받아 전하는 사슬을 이룬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23-25절 성찬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만찬과 결이 겹친다 — 배경으로만.
- 고린도 만찬은 각자 음식을 가져온 공동 식사 형태였다 — 배경으로만.
- "오실 때까지"(26절)는 재림을 향한 시간을 둔다 — 어휘 위치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11:23-25 ↔ 눅 22:19-20 (떡과 잔의 만찬)
- 고전 11:25 ↔ 렘 31:31 (새 언약)
- 고전 11:29 ↔ 고전 10:17 (한 몸 / 몸을 분별함)
- 고전 11:1 ↔ 고전 4:16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전하여 준 대로 지키니 칭찬한다"로 열고, 예배 때 머리를 가리는 일과 머리 관계를 다룬다. 그러고는 만찬으로 옮겨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한 사람은 시장하고 한 사람은 취하니 주의 만찬이 아니다, 칭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어 성찬의 전승을 읊는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셨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리고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의 죄를 말하며 "자기를 살피고 몸을 분별하여 먹으라" 하고, "서로 기다리라, 남은 것은 가서 바로잡으리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식탁"**
- 초벌 부제: "예배의 머리 됨에서 성찬의 식탁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눅 22장 만찬·공동 식사 형태·재림 시간)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머리 가림 질서(3-16절)를 시대 규범 논쟁으로 끌지 않도록 → 본문이 둔 머리 관계의 어휘만 보존.
- "몸을 분별하라"(29절)의 "몸"을 떡/공동체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한 단어로 보존.
- 성찬 말씀(23-26절)을 교파 교리로 확정하지 않도록 → 전승의 문장만 그대로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의 머리 됨을 다루다가 흐트러진 만찬으로 내려가, 성찬의 전승에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식탁과 "몸을 분별하라"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전하여 준 대로 지키니 칭찬한다"로 열고, 예배 때 머리를 가리는 일과 머리 관계(3절)를 다룬다. 그러나 만찬으로 옮기면 "분쟁이 있다, 한 사람은 시장하고 한 사람은 취한다"는 무질서를 만나 "칭찬하지 아니하노니"로 돌린다. 그 한복판에 성찬의 전승을 둔다 —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23-26절). 이어 "자기를 살피고 몸을 분별하라"(28-29절) 하고, "서로 기다리라"(33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예배의 자리(2-16) → 만찬(17-34). 머릿수건·떡·잔. kephale·anamnesis·diakrino.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두 덩이로 갈림. "칭찬"의 뒤집힘. 한가운데 성찬의 무게.
3 시작과 끝	시작 — "나를 본받으라"(1). 끝 — "서로 기다리라"(33). 본받음에서 기다림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나·너희 / 머리 관계의 넷 / 주 예수. 사상 — "나를 기념하라"(24),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26).
5 장면 컷	컷 1 본받음(1-2). 컷 2 머리(3-16). 컷 3 흐트러진 만찬(17-22). 컷 4 성찬(23-26). 컷 5 분별(27-34).
6 의문·발견·정보	칭찬의 켜짐·꺼짐. "몸"의 지시 대상. 약한 자·병든 자. 눅 22장 결이 겹침.
7 동영상	본받음 → 머리 → 흐트러진 만찬 → 성찬의 전승 → 분별과 기다림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식탁". 부제 — "예배의 머리 됨에서 성찬의 식탁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예배의 자리와 만찬을 걸으며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칭찬과 책망**: "칭찬하노라"(2절)가 "칭찬하지 아니하노니"(17·22절)로 갈린다. 같은 모임이 두 평가 사이에 선다.

2. **결 2 — 전승의 사슬**: "전하여 준 것"(2·23절)이 양끝에 놓여, 받아서 전하는 성찬의 사슬을 이룬다.

3. **결 3 — 기념과 전함**: "나를 기념하라"(24절)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26절)이 떡과 잔에서 만난다. 먹음이 선포가 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11:29** ↔ **고전 10:17** (한 몸 / 몸을 분별함).
- 다른 권 — **눅 22:19-20** (떡과 잔의 만찬), **렘 31:31** (새 언약).
- 정경 흐름 — 성찬의 전승은 10장의 "한 몸"을 예배의 식탁에서 다시 빚는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는 권면 곁에 앉는다.
- **멈춤 1**: "칭찬하지 아니하노니"의 흐트러진 만찬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자기를 살피고 몸을 분별하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먹고 마심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성찬의 떡과 잔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예배의 머리 됨이 다뤄진다
- [x] 만찬에 분쟁과 무질서가 있다

- [x]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 [x]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 [x] 먹고 마심이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 [x] 자기를 살피고 몸을 분별하라 한다
- [x]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한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11장은 그 호(arc)에서 **'새 언약의 식탁이 세워지는 자리'**다.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25절)이라 불리는데, 이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약속이 한 식탁에서 기념되는 자리다. 출애굽의 유월절 식탁이 새 언약의 성찬으로 이어지는 — 구속사의 큰 식탁이 고린도의 작은 모임에 놓인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거룩(Holiness)** — "합당하게" 먹는 분별 — 과 **사랑(Love)** — 서로 기다림 — 이 성찬에서 만나는 자리다. 분열하는 고린도 한복판에서, 흐트러진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식탁으로 바로잡힌다. 죽음(피·죽으심)에서 한 몸으로,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의 기다림으로 — 그 좌표에 11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흐트러진 만찬→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식탁(26절) / 분쟁·파당→몸을 분별함(29절) / 먹음→선포(katangello) / 기념(과거)→오실 때까지(미래).**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무질서에서 기념으로 미는 운동이다. 흐트러진 식탁 → 성찬의 전승 → 자기 살핌 → 서로 기다림. 정지된 규례가 아니라, 흐트러짐이 한 몸의 식탁을 향해 바로잡혀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머릿수건과 떡·잔의 만찬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흩어진 식탁이 한 몸으로 회복되는 통치**다. 고린도의 만찬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갈라진 자리 — 한 사람은 취하고 한 사람은 시장한 식탁이다. 바울은 그 식탁 한복판에 주의 죽으심을 둠으로, 먹는 행위 아래에서 함께 분별되어야 할 한 몸을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떡과 잔이지만, 아래는 자기 배를 채우는 자아가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28절) 형제를 기다리는 자아의 회복이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26절)은 입의 말이 아니라 함께 떼는 떡으로 선포되는 — 사람 전체로 사는 복음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떡과 잔을 들기 전 "자기를 살피고" 형제를 기다리는 그 멈춤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한 몸의 식탁으로 나를 부르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흐트러진 만찬 곁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성찬 곁에 나란히 세운다. "~를 지키라"는 규례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이 죽으심을 기념하고 오심을 기다리는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식탁의 한 몸이 한 성령의 한 몸으로 —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되는 은사의 몸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1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칭찬"이 왜 한 장 안에서 켜졌다 꺼지는가(2절 ↔ 17·22절)?

- 같은 사람들이 칭찬과 책망 사이에 놓인다.
- 갈림의 까닭은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머리 순서 한복판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12절)가 왜 끼어드는가?

- 순서를 말하다 상호 의존과 근원으로 돌린다.
- 그 끼어듦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몸을 분별하라"(29절)의 "몸"은 떡인가 공동체인가?

- 본문이 한 단어로 두고 더 긋지 않는다.
- 지시 대상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식탁의 흐트러짐과 "약한 자·병든 자"(30절)는 어떻게 한 줄에 붙는가?

- 합당하지 않게 먹음과 몸의 약함이 인접한다.
- 그 연결은 관찰로는 보류.

Q5.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26절)에서 먹음이 어떻게 전함이 되는가?

- 떡과 잔이 선포(katangello)의 자리가 된다.
- 행함이 전함이 되는 결은 묵상으로 이월.

Q6. "그가 오실 때까지"(26절)는 식탁에 어떤 시간을 두는가?

- 기념(과거)과 기다림(미래)이 한 떡에 같이 있다.
- 그 시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12장

1CO-012 · 서신서 · 헬라어

>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하나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으니" —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두 무대 — 은사의 목록(1-11절)과 사람의 몸(12-31절).
- 은사 소품 — 지혜·지식·믿음·병 고침·능력·예언·영 분별·방언·통역(8-10절).
- 몸 소품 — 손·발·눈·귀·코(15-21절), "약하게 보이는 지체"·"덜 귀히 여기는 지체"(22-23절).
- 거듭되는 "은사"(charisma)와 "한 몸"(soma, 12·13·20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여럿이 줄짓다("여러 가지나") "같은"으로 묶인다.
- "하나"와 "여럿"이 번갈아 울린다 — 여러 은사/한 성령, 많은 지체/한 몸.
- 몸이 인격처럼 대화하는 그림(15-21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 은사 이야기를 엶.
-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 더 큰 것과 "가장 좋은 길"로 닫힘.
- 은사의 다양함에서 한 길로 좁혀진다(그 길은 13장으로 이월).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너희·각 사람 / 성령·주·하나님(4-6 근원) / 의인화된 몸의 지체들(15-21).
- 상황: 다양한 은사를 한 근원으로 묶음 —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11절).
- 사상의 핵 —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13절).
- 뒤집힘 —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22절), "함께 고통·함께 즐거움"(26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예수를 주시라" — 모든 은사 앞의 한 고백.
- 컷 2 (4-11): 은사의 목록 —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
- 컷 3 (12-20): 한 몸 많은 지체 — 발·귀·눈의 대화.
- 컷 4 (21-26): 약한 지체가 요긴함 — 함께 고통·함께 즐거움.
- 컷 5 (27-31): 몸 안의 직분 —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

6 — (1) 원어 카드

- charisma(χάρισμα) — 은사. 은혜(charis)와 한 뿌리. 4절 등.
- pneuma(πνεῦμα) — 영·성령. "같은 성령"(4절).
- soma(σῶμα) — 몸. 12·13·20절 "한 몸".
- melos(μέλος) — 지체. 12·14절 등 "많은 지체".
- diairesis(διαίρεσις) — 나뉨·배분. 4-6절 "여러 가지".
- synergeo 계열 — 함께 일함의 결. 26절 "함께 고통·함께 즐거움"의 그림.

6 — (2) 문학 구조

- 한 고백(1-3) → 은사의 목록(4-11) → 한 몸의 그림(12-26) → 직분과 "가장 좋은 길"(27-31).
- 다양함(4-11)과 하나 됨(12-26)의 쌍.
- 앞 목록(8-10)과 끝 목록(28)이 몸의 그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본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3절 "유대인·헬라인·종·자유인"의 구분이 한 몸에서 무너진다 — 배경으로만.
- 당시 몸을 정치 공동체에 비유하는 화법이 있었다 — 배경으로만.
- "가장 좋은 길"(31절)은 13장의 사랑으로 이어진다 — 위치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12:13 ↔ 갈 3:28 (유대인·헬라인·종·자유인이 다 하나)
- 고전 12:12 ↔ 롬 12:4-5 (한 몸에 많은 지체)
- 고전 12:31 ↔ 고전 13:1 ("가장 좋은 길" → 사랑)
- 고전 12:3 ↔ 롬 10:9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하고, 은사·직분·사역은 여러 가지나 성령·주·하나님은 같다고 연다. 지혜·지식·믿음·병 고침·능력·예언·영 분별·방언·통역을 늘어놓고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모은다. 그리고 몸으로 옮겨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지 않고 눈이 손에게 "쓸 데 없다" 하지 못한다 한다. 도리어 약한 지체가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 귀하게 입혀 분쟁이 없게 하셨으며,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다 한다. 끝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직분을 세운 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여러 은사 한 성령 — 많은 지체가 한 몸이라"**
- 초벌 부제: "여러 은사를 한 성령으로, 많은 지체를 한 몸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갈 3장 결·몸 비유 화법·롬 12장)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은사 목록(8-10절)을 은사 서열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같은 성령이 나눠 주심"의 결만 보존.
- 약한 지체의 요긴함(22절)을 사회 평등 구호로 끌지 않도록 → 몸의 그림 그대로 보존.
- "가장 좋은 길"(31절)을 미리 사랑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13장으로 이월하며 위치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은사를 한 성령으로 묶고, 많은 지체를 한 몸으로 세워,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함을 보이고 "가장 좋은 길"로 손가락을 드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하고, 은사·직분·사역은 여러 가지나 성령·주·하나님은 같다 한다. 지혜·지식·믿음·병 고침·능력·예언·방언을 늘어놓고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11절) 모은다. 몸으로 옮겨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13절) 하고, 발·눈·귀가 서로 "쓸 데 없다" 하지 못함을 보인다. 도리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고"(22절),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다"(26절) 한다. 끝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직분을 세운 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31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은사의 목록(1-11) → 사람의 몸(12-31). 손·발·눈·귀. charisma·soma·melos.
2 첫 느낌·분위기	여럿이 "같은"으로 묶임. "하나"와 "여럿"의 맞물림. 몸의 대화.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은사 이야기(1). 끝 — "가장 좋은 길"(31). 다양함에서 한 길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너희·각 사람 / 성령·주·하나님 / 몸의 지체들. 사상 — "한 몸"(13), 약한 지체의 요긴함(22).
5 장면 컷	컷 1 한 고백(1-3). 컷 2 은사 목록(4-11). 컷 3 한 몸(12-20). 컷 4 약한 지체(21-26). 컷 5 직분(27-31).
6 의문·발견·정보	"같은"의 반복. 사모함과 주어짐. 순서와 평등. 갈 3장 결이 겹침.
7 동영상	한 고백 → 은사 목록 → 한 몸의 지체 → 약한 지체의 요긴함 → "가장 좋은 길"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여러 은사 한 성령 — 많은 지체가 한 몸이라". 부제 — "여러 은사를 한 성령으로, 많은 지체를 한 몸으로".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은사의 목록과 한 몸의 지체들 사이를 걸으며 "약한 지체가 요긴하다"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여럿과 하나**: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4절), "많은 지체나 한 몸"(12절). 다양함과 하나 됨이 번갈아 울린다.

2. **결 2 — 약한 지체의 요긴함**: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22절). 우열이 몸의 그림에서 무너진다.

3. **결 3 — 함께 고통·함께 즐거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다"(26절). 한 몸은 함께 느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12:31** ↔ **고전 13:1** ("가장 좋은 길" → 사랑), **고전 12:13** ↔ **고전 10:17** (한 몸).
- 다른 권 — **롬 12:4-5** (한 몸 많은 지체), **갈 3:28** (다 하나).
- 정경 흐름 — 한 몸의 그림은 10·11장의 "한 몸"을 성령의 은사로 다시 세운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은사의 다양함 앞에 앉는다.
- **멈춤 1**: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내 다름이 한 몸의 요긴함이 된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가장 좋은 길"의 문턱*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 [x] 같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 [x]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 [x]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 [x]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다
- [x]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 [x]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 있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12장은 그 호(arc)에서 **'분열이 한 몸으로 회복되는 정점의 한 칸'**이다. 성령강림(행 2장) 이후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된 공동체다. 바울은 그 한 몸을 고린도의 흩어진 은사들 위에 다시 세운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사랑(Love)**의 문턱이다 — "가장 좋은 길"(31절)이 바로 다음 장의 사랑(agape)을 가리킨다. 분열하는 고린도 한복판에서, 은사의 우열 다툼은 약한 지체가 요긴한 한 몸으로 뒤집힌다. 흩어진 다양함에서 서로 필요한 한 몸으로, 그리고 그 몸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로 — 그 좌표에 12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여러 은사(charisma)→한 성령(11절) / 많은 지체(melos)→한 몸(soma, 13절) / 우열→약한 지체의 요긴함(22절) / 은사→"가장 좋은 길"(3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다양함에서 한 몸으로, 그리고 사랑의 문턱으로 미는 운동이다. 은사의 목록 → 한 성령의 묶음 → 한 몸의 그림 → 약한 지체의 요긴함 → "가장 좋은 길". 정지된 은사 분류표가 아니라, 흩어진 다양함이 한 몸을 거쳐 사랑을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은사의 목록과 몸의 비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우열로 갈린 자들이 서로 필요한 한 몸으로 회복되는 통치**다. 분열하는 고린도는 은사로 서로를 견주는 곳 — 누가 더 큰가를 다투는 자리다.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22절) 함으로, 은사 아래에서 서로의 필요를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방언·예언·능력이지만, 아래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자아가 아니라 한 지체의 고통을 제 몸으로 느끼는 자아 — 사람 전체로 한 몸 되는 회복이다. 다름이 곧 한 은혜(charis)의 나뉨이며, 그 나뉨이 분열이 아니라 한 몸을 짓는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나의 다름과 약함이 한 몸의 "요긴함"이 되고, 한 지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그 한 몸의 사랑이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은사의 목록 곁과 한 몸의 지체들 곁에 나란히 세운다. "~를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한 몸을 위해 쓰이고 약한 지체가 요긴해지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 그리고 그 문을 "가장 좋은 길"을 향해 열어 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한 몸.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몸을 세우는 여러 은사가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 모든 은사를 잇고 한 몸을 살리는 사랑(agape)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1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31절)와 "성령이 뜻대로 나눠 주신다"(11절)는 어떻게 같이 가는가?

- 사모함과 주어짐이 한 장에 함께 있다.
- 둘의 관계는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약한 지체가 왜 "도리어 요긴한"가(22절)?

- 강한 것보다 약한 것에 본문이 더 머문다.
- 뒤집힘의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3. 직분의 순서(28절 "첫째·둘째·셋째")와 몸의 평등은 어떻게 함께 있는가?

- 순서와 우열 무너뜨림이 한 장에 같이 있다.
- 그 사이는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다"(26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몸 전체가 한 지체의 아픔을 같이 느낀다.
- 그 그림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모든 은사 앞에 "예수를 주시라"(3절)가 먼저 놓이는 까닭은?

- 다양한 은사 앞에 한 고백이 선다.
- 그 순서의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가장 좋은 길"(31절)은 무엇인가?

- 은사를 말하다 한 길로 손가락을 든다.
- 그 길의 정체는 다음 장으로 이월하며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13장

1CO-013 · 서신서 · 헬라어

>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은 오래 참고" — 부분이 온전한 데로 가고,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거의 무대 없는 노래의 자리 — 소재의 세 결로 본다.
- 은사 소품(1-3절) — 방언·예언·지식·믿음·구제·"몸을 불사름".
- 사랑의 동사 목록(4-7절) —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자라남 소품(11-12절) — "어린아이"·"장성한 사람"·"거울". agape가 장 전체를 떠받친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 가운데가 노래처럼 잔잔히 흐른다(동사 목록).
- 끝이 거울·얼굴의 자라남으로, 한 줄 "제일은 사랑"으로 닫힌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 무너뜨리며 열림.
-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셋 중 하나를 들어 닫힘.
-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에서 제일임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내가"(1-3·11-12) / "사랑"이 동사의 주어로 거의 인격처럼 섬(4-8).
- 상황: 은사 무너뜨림(1-3) → 사랑의 됨됨이(4-7) → 그칠 것과 남을 것(8-13).
- 사상의 핵 —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8절),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10절).
- "모든 것"의 네 번 반복(7절) — 참고·믿고·바라고·견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사랑이 없으면" — 방언·예언·지식·믿음·구제를 무너뜨림.
- 컷 2 (4-7): 사랑의 됨됨이 —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컷 3 (8-12): 그칠 것과 남을 것 — 부분에서 온전으로, 거울에서 얼굴로.
- 컷 4 (13): "믿음 소망 사랑…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6 — (1) 원어 카드

- agape(ἀγάπη) — 사랑. 장 전체를 떠받친다.
- makrothymeo(μακροθυμέω) — 오래 참다·노를 더디 내다. 4절 "오래 참고".
- glossa(γλῶσσα) — 방언·혀. 1·8절.
- prophēteia(προφητεία) — 예언. 2·8절.
- teleios(τέλειος) — 다 자란·온전한. 10절 "온전한 것".
- ainigma(αἴνιγμα) — 수수께끼·희미함. 12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6 — (2) 문학 구조

- 은사의 무가치(1-3) → 사랑의 됨됨이(4-7) → 영속성과 자라남(8-12) → 제일의 사랑(13).
-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의 세 번 반복(1-3절).
- 그칠 것(예언·방언·지식)과 남을 것(사랑)의 가름(8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꽹과리"·"구리"(1절)는 시끄러운 금속 소리의 그림 — 배경으로만.
- 당시 거울은 닦은 금속이라 상이 희미했다(12절) — 배경으로만.
- 8절의 그칠 은사들은 12장 목록을 그대로 받는다 — 위치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13:8 ↔ 고전 12:8-10 (예언·방언·지식의 은사)
- 고전 13:13 ↔ 살전 1:3 (믿음의 역사·사랑의 수고·소망의 인내)
- 고전 13:2 ↔ 마 17:20 (산을 옮길 믿음)
- 고전 13:1 ↔ 고전 12:31 ("가장 좋은 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천사의 말, 예언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믿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까지 세 번 가정하고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다"고 무너뜨린다. 그러고는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흐른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자랑·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어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방언·지식은 폐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폐하리라" 한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다 장성하여 버렸고,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한다. 끝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사랑은 오래 참고 —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초벌 부제: "사랑 없는 큰 은사에서, 떨어지지 않는 제일의 사랑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금속 거울·꽹과리 그림·12장 은사 받음)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온전한 것이 올 때"(10절)를 시한 교리로 단정하지 않도록 → "부분→온전"의 결만 보존.
- 사랑의 동사 목록(4-7절)을 윤리 규범으로 굳히지 않도록 → 사랑을 주어로 둔 본문 그대로 기록.
- "제일은 사랑"(13절)의 까닭을 본문 밖에서 채우지 않도록 → 단언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큰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고, 사랑의 됨됨이를 펼친 뒤, 부분에서 온전으로 자라 "그중의 제일은 사랑"으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천사의 말·예언·모든 지식·산을 옮길 믿음·몸을 불사름까지 가정하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다"고 무너뜨린다. 그러고는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흐른다 —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4-7절). 이어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방언·지식은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폐하리라"(8-10절) 하고, "거울로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12절) 한다. 끝은 "믿음 소망 사랑…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13절)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결 — 은사(1-3)·사랑의 동사(4-7)·자라남(11-12). 꽹과리·거울. agape가 떠받침.
2 첫 느낌·분위기	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무너짐. 가운데가 노래처럼 흐름. "제일은 사랑"으로 닫힘.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1). 끝 — "제일은 사랑"(13). 없음에서 제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내가" / "사랑"이 동사의 주어. 사상 — "떨어지지 아니하되"(8), "부분→온전"(10).
5 장면 컷	컷 1 무너뜨림(1-3). 컷 2 됨됨이(4-7). 컷 3 그칠 것·남을 것(8-12). 컷 4 제일(13).
6 의문·발견·정보	사랑이 동사로 그려짐. "온전한 것"의 시점. "제일"의 까닭. 12장 은사를 받음.
7 동영상	큰 은사 무너뜨림 → 사랑의 됨됨이 → 부분에서 온전으로 → "제일은 사랑"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사랑은 오래 참고 —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부제 — "사랑 없는 큰 은사에서, 떨어지지 않는 제일의 사랑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무너지는 큰 은사와 흐르는 사랑의 동사 사이를 걸으며 "사랑이 없으면"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 세 번 반복되어(1-3절) 가장 큰 은사를 무너뜨린다.

2. **결 2 — 동사로 그려지는 사랑**: 4-7절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로 흐른다. 사랑이 주어로 행한다.

3. **결 3 — 떨어지지 않음과 자라남**: 예언·방언·지식은 폐하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8절), 부분이 온전으로 자라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12절).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13:1** ↔ **고전 12:31** ("가장 좋은 길"), **고전 13:8** ↔ **고전 12:8-10** (그칠 은사들).
- 다른 권 — **살전 1:3** (믿음·사랑·소망), **마 17:20** (산을 옮길 믿음).
- 정경 흐름 — 사랑장은 12장의 한 몸을 살리는 길로, 14장의 질서를 떠받치는 토대로 놓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자기 가장 큰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자리에 앉는다.
- **멈춤 1**: "사랑은 오래 참고"의 동사 곁에서 멈춘다.
- **멈춤 2**: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거울로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는 한 줄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사랑의 동사들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 [x]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 [x]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 [x]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 [x]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 [x]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온전히 안다
- [x]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13장은 그 호(arc)의 **절정 가운데 하나**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곧장 **사랑(Love)**의 대명령(마 22 "마음·목숨·뜻을 다하여")에 닿는다 — "온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 매달려 있다"던 그 사랑이, 고린도의 은사 다툼 한복판에 "가장 좋은 길"로 놓인다. 12장이 여러 지체를 한 몸으로 묶었다면, 13장은 그 한 몸을 실제로 잇고 살리는 것이 사랑임을 보인다. 분열에서 한 몸으로 가는 고린도전서의 운동에서, 사랑은 그 한 몸을 지탱하는 척추다. 은사는 부분이며 그치지만, 사랑은 온전한 데까지 —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까지 — 떨어지지 않고 건너간다. 구속사의 마지막(거룩·완성)에서도 남을 것이 사랑임을 미리 비추는 자리에 13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사랑 없는 큰 은사(꽹과리)→떨어지지 않는 사랑(8절) / 은사→가장 좋은 길(agape) / 부분(ek merous)→온전(teleios, 10절) / 거울의 희미함→얼굴과 얼굴(12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은사에서 사랑으로, 부분에서 온전으로 미는 운동이다. 무너지는 큰 은사 → 사랑의 됨됨이 → 그칠 것과 남을 것 → "제일은 사랑". 정지된 찬가가 아니라, 모든 은사와 모든 앎이 사랑을 향해, 그리고 온전한 마주봄을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방언·예언·지식 같은 은사와 사랑의 덕목 목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한 몸을 실제로 잇고 살리는 사랑의 통치**다. 분열하는 고린도는 은사로 서로를 견주며 자랑하는 곳이다. 바울은 가장 큰 은사조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2절)라 함으로, 행위와 능력 아래에서 사람을 잇는 사랑을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천사의 말과 산을 옮길 믿음이지만, 아래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5절)는 자아 — 지성·감정·의지·욕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 전체의 회복이다. 12장의 한 몸이 13장의 사랑으로 비로소 살아 있는 몸이 된다.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통째로 다스리는 통치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내가 가진 가장 큰 것조차 "사랑이 없으면" 빈손임을 아는 그 자리에서, 한 몸을 잇고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의 운동에의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무너지는 큰 은사 곁과 떨어지지 않는 사랑 곁에 나란히 세운다.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닫지 않고, 사랑이 오래 참고 견디며 한 몸을 잇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을 향해 부른다. 가장 좋은 길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부분을 넘어 온전으로 건너가는 사랑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사랑.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몸을 잇는 사랑이 모임의 질서로 — "덕을 세우는" 예언과 "품위 있고 질서 있게"의 예배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1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큰 희생조차 "사랑이 없이" 가능한가(3절)?

- 가장 큰 희생도 사랑 없이 유익이 없다 한다.
- 그 가능성은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사랑이 왜 동사로만 그려지는가(4-7절)?

- 정의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로 사랑을 그린다.
- 그 화법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온전한 것이 올 때"(10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부분이 폐하고 온전이 온다 한다.
- 그 시점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왜 사랑이 믿음·소망 가운데 "제일"인가(13절)?

- 본문은 단언만 하고 까닭은 말하지 않는다.
- 그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5.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12절)는 무엇을 마주 놓는가?

- 내 앎과 나를 아심이 마주 놓인다.
- 그 마주봄의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그치는 은사(8절)와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어떻게 한 장에 있는가?

- 폐할 것과 남을 것이 나란히 놓인다.
- 그 가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14장

1CO-014 · 서신서 · 헬라어

> 알아듣는 말이 덕을 세운다. 방언과 예언 사이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가 울린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모임의 자리 — "교회에서"(19·28·35절)가 거듭.
- 비유 소품 — 피리·거문고(7절), 나팔(8절).
- 등장 소품 — "외인"·"믿지 아니하는 자"(23-24절)가 들어옴.
- 잣대 소재 — "덕을 세운다"(oikodome), "알아듣는가", "마음"(nous, 14-1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방언과 예언이 계속 맞놓인다.
- "덕을 세운다"가 잔물결처럼 반복된다.
- 끝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40절)로 정돈된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 사랑과 예언으로 열림.
-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 정돈으로 닫힘.
- 사랑에서 질서로, 사모함에서 덕 세움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유형: 방언을 말하는 자 / 예언하는 자 / 알아듣는 자·외인·믿지 않는 자 / 통역하는 자.
- 상황: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나(4절) 알아듣지 못하면 허공에 말함(9절), 예언은 듣는 자의 덕을 세움(3절).
- 사상의 핵 — "일만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19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26절).
- 토대 —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3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방언과 예언 — "예언하는 자가 더 크다".
- 컷 2 (6-19): 피리·나팔의 비유 — 알아듣는 소리, "다섯 마디".
- 컷 3 (20-25): 표적과 덕 — 외인·믿지 않는 자가 들어올 때.
- 컷 4 (26-33): 모임의 질서 — 차례로, 둘이나 셋, 통역.
- 컷 5 (34-40): 정돈 —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6 — (1) 원어 카드

- oikodome(οἰκοδομή) — 세움·집을 지음. 3·4·12·26절 "덕을 세운다".
- prophēteia(προφητεία) — 예언. 장 전체에서 방언과 견줘진다.
- glossa(γλῶσσα) — 방언·혀. 2·4·5절 등.
- hermeneuo(ἑρμηνεύω) — 통역하다·풀어 옮기다. 5·13·27절.
- taxis(τάξις) — 질서. 40절 "질서 있게".
- nous(νοῦς) — 마음·지성. 14·15·19절 "마음으로".

6 — (2) 문학 구조

- 두 말의 견줌(1-25) → 모임의 질서(26-33) → 정돈의 결론(34-40).
- 견줌(1-25)과 정돈(26-40)의 쌍.
- "덕을 세운다"(oikodome)가 잣대로 거듭 쓰인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21절 "다른 방언… 다른 입술로 말하리라"는 이사야 28:11-12 인용 — 배경으로만.
- 피리·거문고·나팔(7-8절)은 분별 가능한 소리의 그림 — 배경으로만.
- "외인"(23절)은 모임에 들어온 바깥 사람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14:21 ↔ 사 28:11-12 (다른 방언·다른 입술)
- 고전 14:1 ↔ 고전 13:13 (사랑을 추구하라)
- 고전 14:26 ↔ 골 3:16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 고전 14:33 ↔ 고전 14:40 (화평과 질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 하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나 알아듣지 못하고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견준다. 피리·거문고도 분별이 없으면 무슨 곡인지 모르고 나팔이 분명치 않으면 누가 싸움을 준비하겠느냐 하며, "교회에서 일만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한다. "온 교회가 다 방언을 말하면 외인이 미쳤다 하나, 다 예언하면 그가 책망을 받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한다. 모임의 차례를 정해, 찬송·가르침·계시·방언·통역이 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방언은 둘이나 셋이 차례로 하고 통역하며, 예언도 둘이나 셋이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며, 한 사람씩 차례로 하라 한다. 끝으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덕을 세우는 말 — 품위 있고 질서 있게"**
- 초벌 부제: "방언과 예언의 견줌에서, 덕을 세우는 질서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 28장 인용·악기 비유·외인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방언/예언 견줌(1-25절)을 은사 우열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덕을 세우는가"의 잣대만 보존.
- "여자는 잠잠하라"(34-35절)를 단정적 규범 논쟁으로 끌지 않도록 → 본문 위치만 보존, 의문으로 이월.
- "화평의 하나님"(33절)을 질서 이데올로기로 확장하지 않도록 → 본문 문장 그대로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덕을 세우는가"로 견주어, 알아듣는 말로 모임을 세우라 권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하라" 하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나 알아듣지 못하고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견준다. 피리·나팔도 분별이 없으면 알 수 없듯, "교회에서 일만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19절) 한다. 온 교회가 다 방언을 말하면 외인이 미쳤다 하나 다 예언하면 그가 엎드려 경배하리라 하고, 모임의 차례를 정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26절) 하라 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33절)이라는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40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모임의 자리("교회에서"). 피리·나팔·외인. oikodome·hermeneuo·taxis·nous.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방언과 예언의 견줌. "덕을 세운다"의 반복. "질서 있게"로 닫힘.
3 시작과 끝	시작 — "사랑을 추구하라"(1). 끝 — "질서 있게 하라"(40). 사랑에서 질서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방언·예언하는 자 / 외인·통역하는 자. 사상 — "다섯 마디"(19), "덕을 세우기 위하여"(26).
5 장면 컷	컷 1 두 말(1-5). 컷 2 비유(6-19). 컷 3 표적과 덕(20-25). 컷 4 질서(26-33). 컷 5 정돈(34-40).
6 의문·발견·정보	"덕을 세움"의 잣대. 표적과 미침. "차례로". 사 28장 인용.
7 동영상	두 말의 견줌 → 비유 → 표적과 덕 → 모임의 차례 → "화평의 하나님"의 질서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덕을 세우는 말 —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부제 — "방언과 예언의 견줌에서, 덕을 세우는 질서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모임의 자리를 걸으며 "덕을 세우는 말"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알아듣는가**: 방언은 자기 덕을(4절), 예언은 듣는 자의 덕을(3절) 세운다. 알아들음이 잣대다.

2. **결 2 — 다섯 마디**: "일만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19절). 화려함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이 낫다.

3. **결 3 — 사랑이 떠받치는 질서**: "사랑을 추구하라"(1절)로 열고 "질서 있게 하라"(40절)로 닫는다. 13장의 사랑이 14장의 질서를 떠받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14:1** ↔ **고전 13:13** (사랑을 추구하라), **고전 14:33** ↔ **고전 14:40** (화평과 질서).
- 다른 권 — **사 28:11-12** (다른 방언·다른 입술), **골 3:16**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
- 정경 흐름 — 모임의 질서는 12장의 한 몸과 13장의 사랑을 예배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방언과 예언이 견줘지는 모임 곁에 앉는다.
- **멈춤 1**: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화평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알아듣는 말이 한 몸을 세운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덕을 세우는 모임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면 허공에 말함이다
- [x] 예언은 듣는 자의 덕을 세운다
- [x] 일만 방언보다 깨달은 다섯 마디가 낫다
- [x]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 [x] 모임은 차례로, 둘이나 셋이 한다
- [x]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 [x]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14장은 그 호(arc)에서 **'한 몸과 사랑이 예배의 질서로 살아나는 자리'**다. 12장이 한 몸을, 13장이 그 몸을 잇는 사랑을 보였다면, 14장은 그 한 몸과 사랑이 실제 모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인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사랑(Love)** — "남의 덕을 세움" — 이 예배의 구체적 질서로 번지는 자리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33절)이라는 토대는, 무질서한 고린도 모임을 한 몸의 질서로 회복하려는 구속사의 결을 비춘다. 분열에서 한 몸으로 가는 운동이, 알아듣는 말과 차례 있는 예배로 — 자기 덕을 넘어 온 모임의 덕으로 — 구체화되는 좌표에 14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자기 덕(방언)→남의 덕·온 모임의 덕(예언, 3·26절) / 알아듣지 못함→알아듣는 다섯 마디(19절) / 무질서→화평·질서(taxis, 33·40절) / 사랑→질서(1절→40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자기에서 공동체로, 사랑에서 질서로 미는 운동이다. 두 말의 견줌 → 알아듣는 말 → 모임의 차례 → 화평의 질서. 정지된 예배 규정이 아니라, 자기 덕이 한 몸의 덕을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방언·예언의 견줌과 모임의 차례 규정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흩어진 모임이 알아듣고 함께 세워지는 한 몸으로 회복되는 통치**다. 고린도의 모임은 저마다 방언을 자랑하며 동시에 떠드는 곳 — 외인이 들어와 "미쳤다" 할 만한 자리다. 바울은 "덕을 세우는가"를 잣대로 둠으로, 말의 화려함 아래에서 서로를 세우는 사랑을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방언과 예언이지만, 아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아가 아니라 "깨달은 마음"(19절)으로 남을 세우는 자아 — 영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사람 전체의 회복이다. 13장의 사랑이 14장에서 알아듣는 말과 차례 있는 질서로 몸을 입는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나를 드러내는 일만 방언보다 남을 세우는 다섯 마디를 택하는 그 사랑이, 한 몸을 세우는 운동으로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자기 덕을 세우는 방언 곁과 남의 덕을 세우는 예언 곁에 나란히 세운다. "~를 하라"는 규정으로 닫지 않고, 모든 말과 모임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흐르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가장 좋은 길(사랑)은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한 몸을 세우는 알아듣는 말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덕을 세우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몸을 세우는 모임이 마침내 그 몸의 소망으로 —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의 부활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1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방언이 "표적"(22절)이면서 외인이 "미쳤다"(23절) 하는 까닭은?

- 표적과 미침이 한 단락에 같이 있다.
- 그 사이는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15절)는 무엇을 함께 두는가?

- 영과 마음을 둘 다 둔다.
- 그 둘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다 예언할 수 있다"(31절)와 "여자는 잠잠하라"(34절)는 어떻게 한 장에 있는가?

- 둘이 한 장에 나란히 놓인다.
- 그 사이는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덕을 세운다"가 왜 방언/예언을 가르는 잣대가 되는가?

- 누구의 덕을 세우는가가 기준이 된다.
- 그 잣대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일만 방언보다 "다섯 마디"(19절)가 나은 까닭은?

- 알아듣는 다섯 마디가 일만 방언보다 낫다 한다.
- 그 비교의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화평의 하나님"(33절)과 모임의 질서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무질서가 아닌 화평이 질서의 토대로 놓인다.
- 그 연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15장

1CO-015 · 서신서 · 헬라어

>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 죽음에서 부활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결 — 복음과 증인(1-11), 없다면의 가정(12-34), 부활의 몸과 변화(35-58).
- 증인 소품 — 게바·열두 제자·오백여 형제·야고보·사도들·바울(5-8절).
- 비유 소품 — 씨앗(36절), 해·달·별의 영광(40-41절), 나팔(52절).
- 기둥 소재 — "부활"(anastasis)·"첫 열매"(aparche)·"썩지 아니함"(aphtharsia).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해 받은 것을 다시 건넨다("성경대로", 3-4절).
- "만일… 없으면"의 가정이 거듭되다 "그러나 이제"(20절)로 일어선다.
- 끝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55절)로 외쳐진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3-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받은 복음으로 열림.
- 58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 흔들리지 말라로 닫힘.
- 부활의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첫 열매에서 사망의 삼켜짐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그리스도 / 증인들(5-8절) /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45절).
- 상황: "부활이 없다 하느냐"(12절)는 주장에 맞서, 없다면 믿음·전도가 헛됨(14절)을 보임.
- 사상의 핵 — "그러나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20절),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22절).
- 운동 —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26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었느니라"(54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전해 받은 복음 — 죽으심·장사·다시 살아나심·증인들.
- 컷 2 (12-19): 만일 부활이 없다면 — "더욱 불쌍한 자라".
- 컷 3 (20-34): 그러나 이제 — 첫 열매, 마지막 원수 사망.
- 컷 4 (35-49): 부활의 몸 — 씨앗·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 컷 5 (50-58): 변화와 승리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6 — (1) 원어 카드

- anastasis(ἀνάστασις) — 부활·다시 일어남. 12·13·21·42절.
- aparche(ἀπαρχή) — 첫 열매. 20·23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 egeiro(ἐγείρω) — 일으키다·다시 살리다. 4·15·52절 등.
- nikos(νῖκος) — 승리. 54·55·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 aphtharsia(ἀφθαρσία) — 썩지 아니함. 42·50·53·54절.
- zoopoieo(ζῳοποιέω) — 살게 하다. 22·45절 "삶을 얻으리라"·"살려 주는 영".

6 — (2) 문학 구조

- 복음과 증인(1-11) → 없다면의 가정(12-19) → 그러나 이제(20-34) → 부활의 몸(35-49) → 변화와 승리(50-58).
- "만일… 없으면"(13-17)과 "그러나 이제"(20)의 뒤집힘.
- 심음과 다시 살아남의 네 쌍(42-44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성경대로"(3-4절)는 죽으심·부활을 구약 약속의 성취로 둠 — 배경으로만.
- "첫 열매"(20절)는 추수의 처음 익은 단을 드리던 관습의 그림 — 배경으로만.
- 54-55절은 사 25:8·호 13:14를 엮은 인용 — 위치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15:54 ↔ 사 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 고전 15:55 ↔ 호 13:14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 고전 15:45 ↔ 창 2:7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 고전 15:3-4 ↔ 사 53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와 열두 제자와 오백여 형제와 야고보와 사도들과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한다.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고 우리 전파와 믿음이 헛되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고 없다면으로 무너뜨린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아담 안에서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한다.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묻거니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라" 한다. 끝으로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사망을 삼키고 이기었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사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 초벌 부제: "전해 받은 부활의 복음에서, 사망을 삼킨 승리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첫 열매 관습·사 25:8·호 13:14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받음"(29절)을 교리로 단정하지 않도록 → 논증의 한 예로만 본문 위치 보존.
- "만물을 복종하게"(28절)의 결을 본문 밖에서 채우지 않도록 → 단언만 보존, 의문으로 이월.
- 부활의 몸의 "신령한 몸"(44절)을 사변으로 끌지 않도록 → 씨앗·심음의 본문 비유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전해 받은 부활의 복음을 다시 전하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다"로 죽음을 뒤집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로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증인에게 보이셨음을 전한다(3-8절).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고 우리 믿음이 헛되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14·19절) 하고 무너뜨린 뒤, "그러나 이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아담 안에서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20·22절) 일으킨다.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26절) 하고, 씨앗과 두 아담의 비유로 부활의 몸을 그린 뒤(35-49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었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52-55절)로 외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58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결 — 복음·증인(1-11)·가정(12-34)·몸(35-58). 씨앗·나팔. anastasis·aparche·aphtharsia.
2 첫 느낌·분위기	"성경대로" 전해 받음. "만일 없으면"에서 "그러나 이제"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로 외침.
3 시작과 끝	시작 — "다시 살아나사"(3-4). 끝 —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앎"(58). 부활에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그리스도·증인들 /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상 — "첫 열매"(20), "맨 나중 원수 사망"(26).
5 장면 컷	컷 1 복음(1-11). 컷 2 없다면(12-19). 컷 3 그러나 이제(20-34). 컷 4 부활의 몸(35-49). 컷 5 승리(50-58).
6 의문·발견·정보	"성경대로"의 매임. 죽은 자 위한 세례. "첫 열매"의 농사 그림. 사 25·호 13 인용.
7 동영상	전해 받은 복음 → 없다면의 무너짐 → 그러나 이제 → 부활의 몸 → "사망아 너의 승리가"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사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부제 — "전해 받은 부활의 복음에서, 사망을 삼킨 승리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무너뜨림과 "그러나 이제"의 일으킴 사이를 걸으며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사"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성경대로, 전해 받은 복음**: 죽으심도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3-4절)이며, 많은 증인이 본 사실이다. 부활은 사변이 아니라 받은 증언이다.

2. **결 2 — 그러나 이제**: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나(14-19절), "그러나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20절)가 모든 것을 뒤집는다.

3. **결 3 — 사망을 삼킨 승리**: 마지막 원수 사망(26절)이 끝내 삼켜지고(54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55절)로 외쳐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15:3-4** ↔ **고전 1:23**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전 15:58** ↔ **고전 3:8** (수고대로 상을 받음).
- 다른 권 — **사 25:8 / 호 13:14** (사망을 멸하심), **창 2:7** (첫 아담, 산 영).
- 정경 흐름 — 부활장은 고린도전서의 운동(죽음→부활)의 절정이며, 16장의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로 일상의 부름으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전해 받은 부활의 복음 앞에 앉는다.
- **멈춤 1**: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그러나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한 줄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그러나 이제"의 일으킴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 [x] 많은 증인이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 [x] 부활이 없으면 믿음과 전도가 헛되다
• [x]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 [x]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 [x]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 [x] 사망을 삼키고 이기었으니 수고가 헛되지 않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15장은 그 호(arc)의 **최종 봉우리 — '죽음에서 부활로'의 절정**이다. 1-2장의 십자가가 여기서 빈 무덤으로 완성되고, 12-13장의 한 몸과 사랑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20절)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는다. 구속사의 호(창조→타락→약속→출애굽→왕국→예언→성육신→교회→완성)에서 부활은 **완성**을 미리 비추는 자리다 —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26절).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거룩(Holiness)·완성**에 닿는다 — 계시록의 "거룩한 자를 그대로 거룩하게"가 향하는 그 완성을, 부활의 몸과 "썩지 아니함"(53절)으로 앞당겨 보여준다.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45절), 죽음에 매인 인류 전체가 살려 주는 영 안에서 새 머리를 얻는 구속사의 도착점에 15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죽으심·장사→다시 살아나심(egeiro, 3-4절) / 만일 부활이 없으면(헛됨)→그러나 이제 첫 열매(aparche, 20절) / 첫 아담(산 영)→마지막 아담(살려 주는 영, 45절) / 썩을 것·육의 몸→썩지 아니함·신령한 몸(aphtharsia, 42·53절) / 마지막 원수 사망→삼켜진 사망(nikos, 26·54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죽음에서 부활로, 마지막 원수 사망에서 삼켜진 사망으로 미는 운동이다. 전해 받은 복음 → 없다면의 무너짐 → "그러나 이제"의 일으킴 → 부활의 몸 → 사망을 삼킨 승리. 정지된 교리가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 만유의 완성을 향해 미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빈 무덤과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한 논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죽음에 매인 인류 전체가 살려 주는 영 안에서 다시 사는 구속의 완성**이다. 고린도는 부활을 의심하며 "더욱 불쌍한 자"(19절)가 될 뻔한 곳이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20절)로, 한 분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임을 본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무덤의 비어 있음이지만, 아래는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 죄와 사망에 매였던 사람 전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 회복이다. 사망은 마지막 원수로 놓이고(26절), 끝내 삼켜진다. 부활은 한 사건이 아니라, 만유가 새로워지는 통치의 도화선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모든 것이 헛될 뻔한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사"가 모든 것을 뒤집는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도 타오르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 십자가를 통과해 빈 무덤으로 완성된 복음의 운동에의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더욱 불쌍한 자"의 무너짐 곁과 "그러나 이제 첫 열매"의 일으킴 곁에 나란히 세운다. "믿으라"는 명령으로 닫지 않고, 사망이 삼켜진 그 승리의 자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의 외침 곁에 머물도록, 그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58절)는 일상의 부름으로 보낸다. 가장 좋은 길은 죽음을 부인함이 아니라, 죽음을 삼킨 부활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부활.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사망을 삼킨 부활의 소망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일상의 연보와 문안과 깨어 있음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1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29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논증의 한 예로 두고 지나간다.
- 그 뜻은 본문이 더 풀지 않으므로 보존.

Q2.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려"(28절)의 결은 무엇인가?

- 아들도 복종하게 되리라 한다.
- 그 복종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신령한 몸"(44절)은 어떤 몸인가?

-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한다.
- 그 몸의 결은 답하지 않고 비유 위치만 보존.

Q4. "첫 열매"(20절)와 뒤따르는 추수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처음 익은 단이 추수 전체를 부른다.
- 그 이어짐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되리라"(51절)는 무엇을 함께 두는가?

- 잠과 변화가 한 절에 놓인다.
- 그 함께 놓임의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56절)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사망·죄·율법이 한 줄로 엮인다.

- 그 엮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고린도전서 16장

1CO-016 · 서신서 · 헬라어

> 첫날마다 모아 두라는 연보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로 닫힌다. 사랑의 문안이 한 몸을 끝까지 잇는다.

관찰된 사실

고린도전서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무대 — 연보(1-4절), 여행 계획(5-12절), 문안(13-24절).
- 연보 소품 — "매주 첫날"·"저축"(2절), "편지"·"예루살렘으로 가는 길"(3-4절).
- 문안 소품 — "거룩한 입맞춤"(20절), "내 손으로 쓴 문안"(21절).
- 박힌 아람어 — "마라나타"(maranatha, 22절). logeia·andrizomai·krataioo.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부활의 외침 다음 갑자기 "연보"의 일상으로 내려온다.
- 끝으로 갈수록 이름들이 많아진다(동역자 문안).
- 인사들 사이에 "깨어 굳게 서라"(13-14절)는 굳센 한 줄이 끼인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 실제 살림으로 열림.
- 23-24절: "주 예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 은혜와 사랑으로 닫힘.
- 연보의 실무에서 사랑의 인사로, 살림에서 마음으로 좁혀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나(바울)·너희 / 디모데(10) / 아볼로(12) / 스데바나·브드나도·아가이고(17) / 브리스가와 아굴라(19).
- 상황: 연보 정돈, 여행 통지, 동역자 영접 부탁, 서로 문안 권면.
- 사상의 핵 —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3-14절).
- 마지막 외침 —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2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연보의 실제 — "매주 첫날에 모아 두라".
- 컷 2 (5-9): 여행 계획 — 마게도냐·에베소, "열린 문".
- 컷 3 (10-12): 디모데·아볼로 — 영접과 부탁.
- 컷 4 (13-18): 마지막 권면 — "깨어 굳게 서라", 스데바나의 집.
- 컷 5 (19-24): 문안과 작별 — "마라나타", "나의 사랑이 함께".

6 — (1) 원어 카드

- logeia(λογεία) — 연보·모금. 1절 "연보에 관하여는".
- agape(ἀγάπη) — 사랑. 14·24절 "사랑으로 행하라"·"나의 사랑".
- maranatha(μαρανα θα) — 아람어 "주여 오시옵소서". 22절.
- aspazomai(ἀσπάζομαι) — 문안하다·인사하다. 19·20절.
- andrizomai(ἀνδρίζομαι) — 남자답게·장부답게 행하다. 13절.
- krataioo(κραταιόω) — 굳세게 되다·강건하라. 13절.

6 — (2) 문학 구조

- 연보(1-4) → 여행 계획(5-12) → 마지막 권면(13-18) → 문안과 작별(19-24).
- 실무(1-12)와 마음(13-24)의 쌍.
- 다섯 명령의 잇따름(13-14절)이 "사랑으로 행하라"로 모인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매주 첫날"(2절)은 안식 후 첫날, 부활 기념의 날과 이어진다 — 배경으로만.
-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는 여러 이방 교회가 함께한 모금이었다 — 배경으로만.
- "마라나타"(22절)는 초기 교회의 아람어 기도 외침으로 본다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드

- 고전 16:1-2 ↔ 롬 15:25-26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
- 고전 16:13 ↔ 엡 6:10 (주 안에서 강건하라)
- 고전 16:22 ↔ 계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고전 16:19 ↔ 행 18:2-3 (브리스가와 아굴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대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라, 내가 갈 때에 따로 거두지 않게 하라" 하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라 한다. 여행을 알려 마게도냐를 지나 가서 겨울을 지낼지 모르고 지금은 광대한 문이 열려 에베소에 머문다 한다. 디모데가 가거든 두렵지 않게 영접하라 하고 아볼로는 지금 뜻이 없더라 한다. 그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하고,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그런 이들에게 복종하라 한다. 끝으로 아시아 교회들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문안을 전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 모든 일을 사랑으로"**
- 초벌 부제: "연보와 문안에서, 깨어 굳게 서라는 마지막 권면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예루살렘 연보·마라나타 외침·매주 첫날)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매주 첫날"(2절)을 예배일 교리 논쟁으로 끌지 않도록 → 연보 모음의 날로만 보존.
- "마라나타"(22절)의 번역·구두점을 단정하지 않도록 → 아람어 음역만 보존.
- "남자답게 강건하라"(13절)를 성별 규범으로 환원하지 않도록 → "장부답게·굳세게"의 어휘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고린도전서 16장은 부활의 큰 외침 다음에 연보·여행·문안의 일상으로 내려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마지막 권면과 "마라나타"의 외침으로 한 권을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는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 두라"(1-2절) 하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라 한다. 마게도냐를 지나 가려는 여행을 알리고, "광대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도 많아" 에베소에 머문다 한다. 디모데를 영접하라 부탁하고 아볼로의 형편을 전한 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3-14절) 권한다. 아시아 교회들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문안을 전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마라나타"(20-22절) 하며, "주 예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23-24절)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연보(1-4)·여행(5-12)·문안(13-24). 첫날·저축·입맞춤·친필. logeia·maranatha·agape.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부활 다음 일상으로 내려옴. 이름들이 많아짐. 인사 사이의 굳센 한 줄.
3 시작과 끝	시작 — "연보에 관하여는"(1). 끝 — "나의 사랑이 함께"(24). 살림에서 마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나·너희·디모데·아볼로·브리스가와 아굴라. 사상 — "굳게 서라"(13), "사랑으로 행하라"(14).
5 장면 컷	컷 1 연보(1-4). 컷 2 여행(5-9). 컷 3 동역자(10-12). 컷 4 권면(13-18). 컷 5 작별(19-24).
6 의문·발견·정보	부활 다음의 연보. 열린 문과 대적. 저주와 "마라나타". 친필 한 줄.
7 동영상	연보 → 여행 → 동역자 → "깨어 굳게 서라" → 문안과 "마라나타"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 모든 일을 사랑으로". 부제 — "연보와 문안에서, 깨어 굳게 서라는 마지막 권면까지".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연보의 자리와 오가는 길과 작별의 문안 사이를 걸으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하늘에서 살림으로**: 부활의 큰 장(15장) 다음에 "연보"(1절)라는 가장 작은 실무가 온다. 가장 높음과 가장 낮음이 이웃한다.

2. **결 2 — 굳셈과 사랑**: "깨어 굳게 서라"(13절) 뒤에 곧장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4절)가 온다. 굳셈이 사랑으로 모인다.

3. **결 3 — 분열에서 사랑의 작별로**: 분열을 길게 다룬 편지가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24절)로 닫힌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고전 16:14** ↔ **고전 13장** (모든 일을 사랑으로), **고전 16:1** ↔ **고전 1:2** (성도들의 한 몸).
- 다른 권 — **롬 15:25-26** (예루살렘 연보), **엡 6:10** (강건하라), **계 22:20** (주여 오시옵소서).
- 정경 흐름 — 마지막 권면은 분열·윤리·은사·부활을 다룬 한 권을 사랑의 살림으로 매듭짓는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부활의 큰 외침 다음 연보의 실무 앞에 앉는다.
- **멈춤 1**: "매주 첫날에 모아 두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마라나타 — 주여 오시옵소서"의 외침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한 줄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사랑의 작별 인사 곁*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성도를 위한 연보를 매주 첫날에 모아 두라 한다
- [x] 바울이 여행 계획을 알린다
- [x] 디모데를 영접하라 부탁한다

- [x]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권한다
- [x]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다
- [x] 서로 문안하라, 친필로 문안한다
- [x] 마라나타,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한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의 운동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에서 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로"**다. 16장은 그 호(arc)의 **매듭이자 일상으로의 착지**다. 부활(15장)이라는 우주적 정점 바로 다음에 연보·여행·문안이 오는 것은, 큰 소망이 추상에 머물지 않고 흩어진 교회들의 살림으로 내려옴을 보인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1-4절)는 이방 교회가 모교회를 받치는 한 몸의 표현이며, "마라나타"(22절)는 계 22장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와 한 줄로 이어져 구속사의 종착(재림·완성)을 향해 손을 든다. 5대 대명령의 척추에서 보면 이 장은 **사랑(Love)** — "모든 일을 사랑으로"(14절) — 이 한 권의 매듭이 되는 자리다. 분열에서 한 몸으로 온 고린도전서가, 마침내 연보와 문안과 친필 한 줄의 사랑으로 닫히고, "오시옵소서"의 기다림으로 다음 운동(완성)을 향해 열린다 — 그 좌표에 16장이 선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 **부활의 하늘→연보의 땅(logeia, 1절) / 흩어진 교회→예루살렘을 받치는 한 몸 / 깨어 굳게 섬→모든 일을 사랑으로(agape, 14절) / 이미 받은 은혜→"마라나타"의 기다림(22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큰 소망에서 오늘의 사랑으로, 다시 오심의 기다림으로 미는 운동이다. 연보 → 여행 → 동역자 → 마지막 권면 → "마라나타"의 외침. 정지된 작별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일상의 사랑으로 내려와 다시 일어서고 오심을 기다리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모금·여행 통지·이름들의 문안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한 몸의 사랑이 끝까지 구체적 살림으로 이어지는 통치**다. 13장의 사랑이 여기서는 추상이 아니라 매주 첫날의 저축, 동역자의 영접, 거룩한 입맞춤, 친필 한 줄로 몸을 입는다. 빙산의 수면 위는 연보와 인사지만, 아래는 분열하던 고린도가 먼 예루살렘 성도까지 품고, 가장 큰 소망(부활)을 가장 작은 살림(연보)으로 살아내는 사람 전체의 회복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4절)는 곧 지성·의지·일상의 손길까지 사랑의 통치 아래 두라는 — 사람 전체로 사는 복음이다. 분열의 편지가 사랑의 작별로 닫히는 그 자체가, 한 몸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인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 연보든 영접이든 작은 문안이든, 가장 작은 일상까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 한 몸의 사랑이, "마라나타"의 기다림 속에서 내 안에서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연보의 자리와 작별의 문안 곁에 나란히 세운다. "~를 하라"는 마지막 명령으로 닫지 않고, 부활의 큰 소망이 오늘의 작은 사랑으로 내려오고 "주여 오시옵소서"의 기다림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깨어 굳게 섬과 사랑으로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을 끝까지 잇는 한 호흡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분열에서 한 몸으로 온 이 편지의 운동이, 위로와 화해의 둘째 편지로 — 그리고 "오시옵소서"의 기다림으로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고린도전서 1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부활의 큰 장(15장) 바로 다음에 왜 "연보"라는 작은 실무가 오는가?

-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살림이 이웃해 있다.
- 그 배치의 결은 본문이 더 긋지 않으므로 보존.

Q2. "열린 문"과 "많은 대적"(9절)이 왜 한 절에 같이 있는가?

- 광대한 기회와 많은 대적이 인접한다.
- 그 사이는 묵상으로 이월.

Q3. "저주를 받을지어다" 뒤에 곧 "마라나타"(22절)가 오는 까닭은?

- 저주와 오심의 외침이 붙어 있다.
- 그 인접의 결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대필 편지 끝에 "친필로 문안"(21절)이 들어오는 까닭은?

- 손수 쓴 한 줄이 편지 끝에 박힌다.
- 그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다섯 명령(13-14절)이 왜 "사랑으로 행하라"로 모이는가?

- "깨어·서라·남자답게·강건하라" 뒤에 사랑이 온다.
- 그 모임의 결은 관찰로는 보류.

Q6.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24절)로 한 권이 닫히는 까닭은?

- 분열을 다룬 편지가 사랑의 인사로 닫힌다.
- 그 닫힘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